

보다
BO DA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부평문화재단

BO DA 2017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05

부평문화재단

vol.05

부평문화재단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보다
BO DA





“ 나 도 할 수 있 어 요 ”

어린이날, 부평아트센터에서는 아이들의 눈길을 끄는 다양한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책과 콩나무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봉을
자유자재로 올라가는 믿을 수 없는 서커스를 보며 저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무에 올라 묘기를 보여주는 아이들의 도전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평아트센터의 콩나무는 비록 하루 허락된 것이었지만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늘까지 닿을 꿈의 콩나무가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contents

BODA vol.04

시선



04

MAN FROM ART

행복지수 1위의
부평을 위해
부평생활문화센터가 나서다

생각



08

LIFE CULTURE PEOPLE

음악도시 부평의
전략적 거점,
BP 음악산업센터

10

ART SCENE

대중음악 박물관 탐방기
영국 BME에서
미국 로큰롤 명예의 전당까지

14

LOOK AROUND 1

행복한 부평의 도서관을 위해
미국 동부(워싱턴, 뉴욕)
도서관 탐방

18

LOOK AROUND 2

무엇이 삶을 예술로 만드는가!
건축과 미술, 음악 등
삶에 녹아든 유럽의 예술

인사이드 부평



24

VIEW FINDER 1

내 집 앞 5분 거리
2017 찾아가는
문화마실 언플러그드

28

VIEW FINDER 2

“우리 아이가
음악으로 달라졌어요”
음악감수성교육 ‘오디’

30

ZOOM IN 1

언제나 푸르른 젊음, 인생
그리고 희망
양희은 콘서트

34

ZOOM IN 2

“생일 축하합니다”
부평아트센터 개관 7주년
기념음악회

36

ZOOM IN 3

아이들의 신 나는
놀이터, 꿈터, 생각터
2017 BUKIF 초록누리축제

40

NEWS

부평 POP-UP 피아노 외

미리보다



52

WHAT'S NEXT?

부평아트센터 클래식
베토벤, 브람스를 만나다 외

60

CALENDAR

부평아트센터 개관 7주년
기념음악회 외

INFO



67

INFO

행복지수 1위의 부평을 위해 부평생활문화센터가 나서다

2017년 부평은 음악도시 조성사업과 더불어 부평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평구문화재단은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 168' 개관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동호회 활동 양성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섬섬부터 지혜로운

지난 3월 8일 부평생활문화센터 개관식이 개최되었다. 부평생활문화센터는 이용자가 주체가 되어 공간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공간으로 활용되며, 기존 아트하우스 건물을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으로 리모델링해 윤택하고 풍성한 시민 생활을 돕는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 이날 개관식에서 부평구문화재단 박옥진 대표는 "부평생활문화센터를 통해 생활 곳곳에 문화예술이 흐르는 부평을 위해 함께 즐기는 예쁜 공간을 마련했다"며 이곳에서 부평의 생활문화를 화사하게 꽃피울 것을 약속했다.

1층 입구에서 좌측에는 전시실과 모임방으로 구성된 다목적홀이 자리하고 있고, 모든 공간 대관은 신청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입구 우측에는 카페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접이식 유리문을 열고 야외 테라스도 활용이 가능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밖에도 1층과 지하에 목적에 따라 활용이 가능한 공간들이 마련돼 있는데 이용자가 더 행복한 공간을 추구하는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 168'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 168'

'공감 168'은 부평생활문화센터의 주소에서 차용했다. 외각에 위치한 생활문화센터에 장소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주소인 '아트센터로 168'의 숫자를 활용함으로 쉽게 기억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했다. 부평생활문화센터는 기존 문화시설인 부평아트하우스를 탈바꿈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거점형 생활문화 플랫폼으로 조성된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쉽게 문화를 즐기고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감을 체감할 수 있다. 또한, 부평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용이하고 편리하게 이어나가는 매개체 역할을 하며, 지역주민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1층 활동공간과 지하 1층 연습 공간으로 구성했다. '공감 168'은 동호인,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으로, 향후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생활문화센터 운영 전반의 방향을 제시하고, 청년기획단 [시:음]과 자원봉사자 [공감 프렌즈]와 함께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부평생활문화센터 덕분에 일상이 행복해요!"



임인정

행복나무 - 1층 모임방

우리는 공동 육아모임, 품앗이 모임입니다. 자신이 가진 육아 아이디어를 나누고 공유하는 모임이지요. 저는 심리상담사로서 정보를 공유해주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돌아가며 강사가 되어 지식을 나누고 있어요. 때로 오픈된 공간이라 불편하기도 하지만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에 감사합니다.



홍수표

댄스사랑 회장 - 오픈스페이스

저는 인천의 댄스홍이라고 합니다. '댄스사랑'은 오픈스페이스에서 일주일에 두 번(월, 수) 6시부터 10시까지 프리댄스 및 강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모던 댄스를, 수요일은 라틴 댄스를 합니다. 30~40명 정도 회원으로 있으며 이곳 사용료가 저렴해 회비 1만 원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직했으며, 15년 동안 댄스 강습을 재능기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저녁시간에 강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많이 찾습니다. 공간이 인기가 좋아 연습실 예약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렴하고 넓은 공간은 찾아보기 힘들습니다. 활츠를 주기 위해서는 오픈스페이스 같은 넓은 공간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예약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지리

라니카이 우쿠렐레 - 연습실2

우쿠렐레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라니카이 오케스트라 준회원으로서 10명의 구성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악기 시작한 지 3년 정도 되었고 거의 모두가 지도사 자격증을 땀고 매주 한 번씩 만나 연습합니다. 전공자들은 아니고 음악이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죠. 이곳은 우리가 모여 연습하기에 너무 좋아요. 기존에는 따로 연습실을 빌렸는데 여기는 저렴하고 훌륭하고 깨끗합니다. 연습이 끝나면 1층 카페에서 차 한 잔씩 하는 시간도 배움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정혜림

문화사업본부 문화사업팀

기존의 부평아트하우스를 생활문화센터로 조성 하기 전부터 부평아트하우스를 담당하였고, 생활문화센터로 조성사업 리모델링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기존의 부평아트하우스보다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리모델링 시 도서관처럼 사용되던 공간을 전시실과 모임방으로, 지하의 기둥이 많던 연습실은 공간을 나눠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카페 168'은 방치 되어있던 공간이었는데, 분위기 좋은 카페로 만들기 위해서 인테리어부터 가구, 소품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공간 조성을 하면서 공간에 대한 애정이 많이 생겨서인지 앞으로 고쳐나갈 부분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꼼꼼히 청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페168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 층들부터 자발적으로 동호회를 꾸려 들어오는 경우도 생기고 특히, 저녁 시간에 생활문화센터 인기가 좋습니다. 앞으로 동호회 창출을 위한 "문화즐기기 프로그램"과 "상설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에 있으니 생활문화센터의 좋은 공간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홍매

북울림 강사 — 연습실1

우리는 진도북놀이를 취미로 배우며 공연도 하고 재능기부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주 금요일 예전 사물 하면서 알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연습하는데 그 시간이 즐겁고 공연을 통한 문화 나눔도 실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세련된 공간을 저렴하게 빌려 연습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경숙

더 블루 회원 — 프로그램실 1

더 블루는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각자 관련된 일을 하다가 1주일에 한 번 모여서 그림을 그립니다.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전시회도 엽니다. 오전, 오후 종일 그림을 그리고 나면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듭니다. 종일 그림 그리며 이런저런 사는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랑방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무거운 그림 도구를 다 챙겨서 다닐 수가 없으니 개인사물함이나 창고가 있어서 물건을 두고 다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광숙

율무용단 회장 — 오픈스페이스

손상화 선생님 지도로 한국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회원은 30명, 주로 주부로 구성되어있으며 동아리 구성은 2년 정도됩니다. 부평아트센터 아카데미의 지원이 끝난 후 동아리를 구성돼 이곳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갈고닦은 실력을 여러 무대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화, 금 중급반은 2시부터 3시 반이고 초급반은 3시 40분부터 5시까지입니다. 누구든지 한국 무용을 배울 수 있으니 많이 오셔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계획

상설체험 프로그램 [공감누구나]

공감누구나 바리스타, 공감누구나 화가 모두에게 열려있는 생활문화센터 공감 168 카페 안에서 '핸드드립' 커피를 직접 만들어 마시는 누구나 바리스타 체험과 스크래치 염사로 멋진 부평생활문화센터 나이트 뷰를 그리는 체험은 방문객 누구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 체험료 : 무료
- 장소 :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 168 1층 카페168
- 운영시간 : 2017. 7.~12.
 - 바리스타 (매주 화, 목 14시~17시)
 - 화가 (개관시간 내 상시)
- 재료 소진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동호회 창출프로그램 [문화즐기기 프로그램]

주민 공모로 개설한 생활문화강좌를 통해 다양한 생활문화를 체험하고 누구나 새로운 동호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수강료 : 무료
- 문화강좌 : 동기타, 보테니컬 아트, 무용, 진도북놀이, 도예, 영화제작
- 강좌문의 : 032.500.2069



공간 소개

1층 활동공간

다목적홀(전시실)

- 192m²
- 구비기기 : 세미나용 테이블 및 의자, 음향 장비, 전시용 레일, 빔프로젝터, 전동 스크린, 강연대, 이동식 화이트보드
- 수용인원 : 최대 40명

모임방 1-2-3-4

- 각 20m²
- 구비기기 : 모임용 테이블 및 의자, 책꽂이
- 수용인원 : 최대 6명

커뮤니티 카페-카페168

- 60m²
- 구비기기 : 테이블 및 의자, 음향 장비

프로그램실 1

- 60m²
- 구비기기 : 세미나용 테이블 및 의자, 음향장비, TV, 화이트보드, 강연대
- 수용인원 : 최대 32명

프로그램실 2

- 40m²
- 구비기기 : 세미나용 테이블 및 의자, TV, 화이트보드, 강연대
- 수용인원 : 최대 18명

영상편집실

- 18m²
- 구비기기 : 테이블 및 의자, 컴퓨터 2대, 사물함
- 수용인원 : 최대 2명

대관신청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bpcf.or.kr)에 [대관]-[부평생활문화센터]에서 원하는 공간과 시간 선택 후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상전벽해(桑田碧海)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되다.
흔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질 때 쓰이는
말이다.

지난 4월 1일, 국군 제7302부대가
주둔했던 부평 십정동 송학사 건물이
'BP(부평)음악산업센터'로 개관하였다.
주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돕는
생활문화센터로도 활용될 예정이니,
무시무시한 군 부대의 역사가 화려하게 다시
태어나는 부평의 '상전벽해'가 아닐까.

글 편집부 사진 전석병



음악도시 부평의
전략적 거점,

BP 음악산업센터



BP음악산업센터는 음악창작 활동과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인천·부평의
도시브랜드 구축과 음악인의 지속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센터는 음악산업 아카데미, 콘텐츠
개발, 뮤직 비즈니스 네트워크, 전문 음악인의
홍보·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하며 부평 곳곳에
음악의 뿌리가 내리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부평 음악도시 조성사업 기간이
마무리되는 2020년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기반사업의

개발 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BP음악산업 아카데미는 전문강사가
제공하는 양질의 커리큘럼과 프로젝트 실행을
통해, 음악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로
개설되었다. 지난 3월, 프로젝트 기획서
작성과 PT면접을 통해 16명의 교육생이
선발되었다.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국내 음악산업분야의 전문 강의, 특강, 멘토링,
실습 프로젝트 기획 및 제작 등 전문화된
교육과정이 진행된다. 전 과정은 무상
교육이며, 프로젝트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실습과정은 교육생들이 음악산업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 운영하며 실무와 창업
등의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기존 대중음악 교육이 연주자 양성 중심의
학제였다면, BP음악산업센터는 한국음악
시장을 키우고, 인천·부평의 음악인 자생을
위한 음악산업의 기획 전문가, 마케터를
양성하는 데 집중한다.
한편 센터 내 BP사운드스튜디오에는
음원제작의 최종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믹싱 및 마스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최근 홈레코딩 녹음 방식의
활성화로 녹음실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음악을

만들고 싶어 하는 뮤지션을 위한 공간이다.
개관식에는 홍미영 부평구청장과 부평구의원
다수가 참석하여, BP음악산업센터가
음악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음악도시'를
조성하는 발전의 시금석이 되길 바라는 격려와
축사가 이어졌다. 더불어 개관을 축하하며
작곡가 돈스파이크의 <아직도 나는 ing>
작편곡 특강이 진행되었다.
새롭게 개관된 BP음악산업센터가 음악을
사랑하는 부평의 지역 주민들과 뮤지션들이
붐비는 허브 공간이 되길 기대해본다.



영국, 미국 대중음악 박물관 탐방기

영국 BME에서 미국 로큰롤 명예의 전당까지

글 박준희 BPO음악산업연구소장

부평이 음악 중심 문화도시를 표방함에 있어 대중음악 선진도시에 대한 벤치마킹은 필수적인 과정으로 생각한다. 필자는 수년 전 대중음악박물관 건립을 위한 연구 중 하나로 영국과 미국의 대표적 대중음악박물관을 탐방해 대중음악박물관 운영과 전시, 아카이브 상황을 취재한 적이 있었다. 그 중 가장 모범적이라고 손에 꼽는 박물관 몇 곳을 소개한다.

BME와 데이빗 보위 전시 (David Bowie is)

런던 외곽에 위치한 O2 아레나(Arena)와 그 안의 부속 대중음악박물관인 BME(British Music Experience)를 탐방하고 V&A(Victoria & Albert Museum)에서 열린 데이빗 보위 전시(David Bowie is)를 감상한 적이 있다. 이곳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잘 만들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BME는 상설전시 개념으로, 데이빗 보위 전시는 기획전시 개념으로 구성이 잘 짜여 있었다. 특히 멀티미디어를 적절히 활용하고, 큐레이터의 풍부한 상상력이 녹아든 데이빗 보위 전시가 압권이었다.

전시를 보고 나면 누구랄 것도 없이 데이빗 보위가 훌륭한 뮤지션, 송라이터, 댄서, 프로듀서에 패션디자이너, 연기자, 철학자임을 의심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 잔상이 커서 뮤지엄숍에서는 기념품을 사게 하고, 집에 가서는 데이빗 보위를 포함한 영국 음악을 듣게 될 것 같았다. 마지막 전시 인터라 총 3시간을 기다려 전시를 봤지만 역시 잘한 선택이었다.

BME 같은 경우는 영국 대중음악을 역사, 문화, 사회, 정치와 버무려서 하나의 중요한 문화유산 수준으로 격상시켜 놓았다. 텍스트, 이미지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아카이빙해 놓았다. 너무 교육적이라서 재미가 없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리 크지 않은 공간에서 방대한 '영국 음악 역사'를 소개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않았을까 싶다. 중요한 것은, 전시기획에 사용된 텍스트 등이 큐레이터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었을 텐데, 여기서 대중음악을 대하는 영국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식을 짐작할 수 있다. 일례로 영국은 1970년대 중요한 음악적인 사건으로 첫 번째 '런던펍크'를

꼽으면서 한국 기준으로 생각하면 서브컬처로 표현되는 '섹스 피스톨즈'를 중요하게 다룬다. 이들이 데뷔음반에서 영국 여왕을 조롱하고, 기성세대에 대해서 가운데손가락을 든 것을 생각한다면 대단한 일이다. 전시실에서 이들 방송 토크쇼 출연 영상을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가관이다. 그런데도 영국 사람들은 런던펍크와 이들 뮤지션들을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대영제국의 자산'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낸 것이니, 그게 참 대단하다는 말이다.

비틀스 스토리와

"David Bowie is 전시 후기" 쇼

리버풀은 비틀스가 초기에 활동했던 도시답게 '비틀스 스토리(The Beatles Story)'라는 재미있는 박물관이 있다. 이 박물관은 일반적인 박물관 형태와 달리 비틀스의 성장과 활동, 소멸 과정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시했고, 그래서 박물관 이름도 '비틀스 스토리'다.

공간도 정방형이 아니라 뱀처럼 길게 구불구불 이어지는 방식이다.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으니, 비틀스는 영원히 리버풀을 먹여 살리는 셈이다. 아울러 근처의 '테이트 리버풀', '리버풀 뮤지엄' 등의 박물관을 살펴볼았는데 많은 문화예술 자원들과 함께 아름답게 조성된 도시가 인상적이었다.

이후 리버풀대학교 대중음악학부(Institute of Popular Music)의 Marion Leonard 교수를 만나서 대중음악 연구와 전시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다. 미팅 후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학 풍경을 둘러보았는데, 참 운치가 있었다. 이런 곳에서 한국의 대중음악을 연구하는 호사를 누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The Beatles Story





Experience Music Project



Rock & Roll Hall of Fame + Museum

이후 V&A(Victoria & Albert Museum)에서 데이빗 보위 전시가 끝나는 것을 기념해 전시를 마감하는 이벤트가 'TOUR' 코너에서 있었다. 전국의 극장 체인 'The Light'에서는 저녁 7시에 일제히 V&A에서 진행되는 "David Bowie Is 전시 후기" 쇼를 생중계했다. 큐레이터가 나와서 전시 기획 취지 등을 설명하는 90분짜리 쇼였다. 이를 기획한 큐레이터의 기획력이 신선했고, 한편으로는 끝까지 데이빗 보위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알차고 멋진 기획이었다.

EMP

미국 대중음악박물관 탐방을 진행하면서 시애틀에 있는 유명한 EMP(Experience Music Project)를 방문했다. EMP는 평소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대중음악박물관이었다. EMP는 지미 헨드릭스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인 폴 앨런(Paul Allen)에 의해서 2000년에 설립되었다. 당시로서는 드문 전시방식이었던 멀티미디어를 전폭적으로 도입한 박물관 사례로도 유명하다. SOUND LAB(음악 체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수석 큐레이터 Jasen Emmons가 박물관에 대한 안내를 해 주었고 이후 수장고 겸 작업실을 관람했다.

로큰롤 명예의 전당

'로큰롤 명예의 전당(Rock & Roll Hall of Fame)'을 찾아 수장고 성격인 Library+Archives를 관람했고,

이 글은 2013년 6월 말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주한 '대중음악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에 연구원으로 참여했고 그해 8월 해외 대중음악박물관 운영 실태를 영국과 미국의 대표적인 박물관 몇 곳을 탐방한 기록을 토대로 쓴 글이다.

'로큰롤 명예의전당'도 둘러봤다. 수석 큐레이터인 Howard Kramer와 대중음악박물관과 대중음악에 관한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로큰롤 명예의 전당 전시와 운영을 지켜보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대중음악박물관 기획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 경험 부족으로 그 부분이 헛갈렸던 것이 사실인데, 좋은 대중음악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가져 가야 할지 파악했다. 박물관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를 수 있는데, 대중음악을 사랑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기획자들이 대중음악을 사랑하는 관람객들과 교감하는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누구에게 보여주고 평가받기 위해서 박물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청춘을 고스란히 대중음악을 사랑하는 일에 바쳤던 기획자들이 그런 기억을 가진 관람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운영진을 보더라도 <Rolling Stones: 50 Years of Rock>과 같은 서적을 집필한 박물관 수석 큐레이터 Howard Kramer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수장고를 정성스럽게 설명해준 유물수집 디렉터, 하다 못해 밥 딜런의 'like a rolling stone' 노래가 나오니까 흥겹게 따라 부르던 박물관의 경비 아저씨 같은, 이들 모두가 로큰롤 명예의 전당이 계속해서 성공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동력이 아닐까. 또한 박물관 라디오스테이션에서 나오는 '클래식 록' 음악에 몸을 맡기는 10~70대까지 나이를 초월한 관람객들을 통해 이 박물관의 생명력은 꽤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부평 생활문화센터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간 1688은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간입니다.

모집 1688분기 대관안내

대관 기간

2017.10.2.(월)~
12.30.(토)

대관 장소

오픈스페이스, 연습실 1,
연습실 2, 연습실 3, 연습실 4,
다목적 홀, 모임방 1·2·3·4,
영상편집실,
프로그램실 1, 프로그램실 2

사용 가능 시간

오전 타임
10:00~13:00 3시간
오후 타임
14:00~17:00 3시간
저녁 타임
18:00~22:00 4시간

사용료

오픈스페이스 2만 원
다목적홀, 연습실,
프로그램실 1만 원
모임방, 영상편집실 무료

한 타임(오전, 오후-3시간/저녁-4시간) 기준
※ 기준시간 초과시 한 시간당 전체 사용료의 20% 가산

대관 문의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사업팀 032-500-2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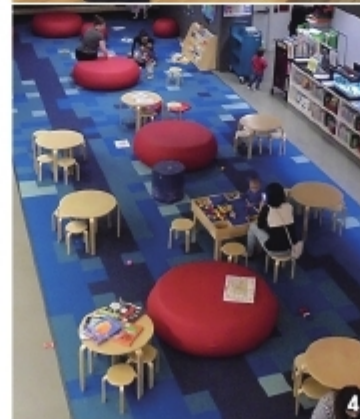
행복한 부평의 도서관을 위해

미국 동부(워싱턴, 뉴욕) 도서관 탐방

글 이미경(부평구립갈산도서관)

지난 5월, 미국 동부(워싱턴, 뉴욕)지역의 도서관을 둘러볼 기회가 생겼다. 미국 도서관의 규모가 우리나라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웅장했다. 역사가 깊은 도서관부터 개관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도서관까지 다녀보며 새롭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워싱턴 D.C 내 공공도서관은 27개 기관이 있고, 6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7개 도서관 내에서 순환 근무를 하고 있다. 27개 도서관 중 8개 도서관 견학만으로도 기타의 도서관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다.

- 1 미국 의회도서관 토머스 제퍼슨 중앙 열람실
- 2 뉴욕공공도서관 3층 로즈중앙독서실
- 3 4 53번가 도서관 내부 및 유아방



8개 미국 도서관의 공통점

우선 방문했던 기관들에서 공통으로 느꼈던 점은 ①망가(만화) 자료 ②컴퓨터 사용의 자유로움 ③전문 사서 배치 ④서로 배려하는 공간 ⑤자료 분류와 배가의 자유로움 ⑥자원봉사 활동 ⑦정부차원에서 연체자들의 통제 ⑧이주민들을 위한 공간 등이었다.

첫 번째로 도서관마다 망가(만화) 자료를 비치해 놓고 있다는 점이다. 도서관은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증거였다. 도서관 관계자들은 고전이나 에세이를 좋아하지 않아도 부담 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청소년들의 도서관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망가 자료를 비치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컴퓨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도서관마다 많은 수의 컴퓨터가 비치되어 있었고, 도서관 회원증만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많지 않다면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회사의 컴퓨터 비치)가 따로 비치된 곳도 있었다. 그만큼 청소년층이 도서관의 중요한 이용자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집에서 가지고 온 게임팩을 도서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곳도 있었다.

세 번째로 전문 사서의 배치이다. 도서관을 방문하면서 사서들이 직접 도서관 투어를 해주며 관련된 정보를 주었다. 그중에서도 단계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공통적으로 나왔었는데, 미국의 사서들의 경우 대학에서는 자유롭게 공부한 후 대학원에서 사서 전공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서라는 직업에 대해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 사서가 배치되어 전문성을 가지고 좋은 책을 고르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 그러므로 이용자들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로 서로 배려하는 공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조그마한 소음이 발생하면 바로 민원이 들어온다. 하지만 미국 도서관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소음(마우스 클릭 소리, 키보드 소리, 책장 넘기는 소리 등은 익숙하다)이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조용하게 머무는 공간(책을 읽거나 조용히 공부하는)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단, 견학하는 동안 이용자들(특히 아이들)의 사진을 찍는 부분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다섯 번째로 자료 배가가 자유롭다는 점이었다. 우리는 십진분류 순서를 고집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연령대별로 우선 분류한 후 문학과 비문학으로 분류하고 지은이, 이름순으로 간략하게 분류하고 배가하는 등 이용자들의 편의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여섯 번째로 자원봉사 활동이다.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는 'Friend of Library'를 통해서 기증 받은 도서를 선별하고 일부를 판매하고 그 판매 수익을 도서관 운영에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 봉사자들도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봉사 후 시간당 소정의 금액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곱 번째로 연체자들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정말 마음에 와 닿은 부분이었고 우리도 시나 구 단위에서 연체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자료를 연체했을 때(30일 정도) \$5의 연체로 부과, 그 자료가 손실 또는 손상되었을 시 \$8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연체료가 \$40 이상 누적된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모든 워싱턴 D.C 공공도서관의 적용규정)되며, 신용불량자로 적용되어 다른 부분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여덟 번째는 이주민들을 위한 자료와 정보 전달이다. 미국이라는 사회는 이주민들이 많은 구조이다. 이민자를 위한 자격증 취득 방법이나 구직을 위한 자료를 비치하여 이민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민자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때 영어가 서툴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연계하여 모국어로 대출카드 발급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상상력 계발을 돕는 도서관 프로그램

우드브리지 네이버후드 도서관의 어린이 자료실은 책상에 크레파스와 색칠 자료들이 비치되어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으며, 미국 의회도서관 어린이센터는 출간되지 않은 도서를 미리 볼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여 이용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런 점은 출판사와 협력한다면 우리도 반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53번가 도서관의 경우는 ‘도서관은 조용해야 한다’는 과거 도서관의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롭고 개방적인 디자인을 표방해 도서관에서 먹고, 휴식도 취하고, 공부도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도심의 중심에 있어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샌드위치 하나 사 들고 도서관에서 점심을 먹으며 책을 읽다가 간다. 또 오페라 등을 공연하고, 영화도 자주 상영한다. 이곳은 책 분류를 숫자 색인이 아닌 로맨스, 여행, 동물, 만화 등 스탠드형 방식으로 분류해 자료 접근에 용이하게 되어 있으며 한국인 사서가 근무하는 곳이기도 하다.

뉴욕공공도서관은 미국 최대의 도서관으로 세계 5대 도서관 중 하나이며 뉴욕을 대표하는 도서관이다. 설립 주체가 뉴욕시가 아니라 독립 법인으

방문했던 미국 도서관들에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점은 **망가(만화) 자료 비치, 자유로운 컴퓨터 사용, 전문 사서 배치, 서로 배려하는 공간, 자료 분류와 배가의 자유로움, 자원봉사 활동, 정부차원에서 연체자들의 통제, 이주민들을 위한 공간** 등이었다.



로 재정은 민간 기부가 주를 이루며 기부금 75%, 정부지원 25%로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방문자 극장, 오디오 투어, 가이드 투어를 제공한다. 뉴욕공공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도서관으로 ‘도서관은 모든 사람에게 지식을 전파할 수 있으며, 누구나 도서관에 들어올 수 있다’는 설립 취지를 시작으로 100년 넘게 모든 뉴욕 시민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1년에 1,700만 명이 넘는 후원자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온라인 이용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규모만큼이나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큰 친절을 베푼다.

모건도서관&박물관은 세계적인 금융가이자 책과 예술을 중요하게 여긴 모건의 개인 서재로 1906년 설립되어 1929년부터 모건 2세가 공공도서관 성격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1인당 \$20의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다. 모건도서관에는 각종 희귀 도서, 판화, 조각품, 편지, 악보, 원고 등 약 35만 점에 달하는 소장품이 있으며, 구텐베르크 성경과 렘브란트의 조각, 베토벤의 친필 악보 등 가치 있는 진귀한 작품들이 수없이 많다. 그리고 이곳에는 시크릿 공간이 있는데 서재에 2층으로 올

라가는 계단이 없다. 비밀의 계단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브루클린 공공도서관은 1912년 착공하였으나 재정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1941년 개관한 도서관으로 30개국 언어의 장서가 100만여 점 소장되어 있다. 미국 내 5번째로 큰 규모의 도서관으로 300여 명의 직원이 있으며 브루클린 공공도서관의 경영 본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분관 수 59개) 브루클린 공공도서관은 큰 규모에 걸맞게 연간 130만 명의 이용자가 방문, 12,000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6년 취약 계층 대상 아웃리치 서비스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국가 최고 도서관으로 선정되어 국립 IMLS 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 (*IMLS(박물관과 도서관 서비스 연구소)가 미국 내 우수 박물관과 도서관에 수여하는 상으로 영부인이 시상하여 매년 10개의 기관이 선정) 또한 특화 장서로 식민지 시대 이전부터 현재까지 브루클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도서, 사진, 신문, 포스터, 지역학교 관련 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평대회 우승자에게는 야구 관람권을 증정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글쓰기 경연 대회 우승자에게는 \$500의 상금과 우승 작품의 인쇄본을 증정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발의하면 자원봉사 시간과 활동비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권발급 서비스를 도서관에서 제공한다.

퀸즈 도서관은 1958년 플러싱에 설립되어 자료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시작하여 1869년 무료대출 도서관으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퀸즈 도서관은 행정기관으로부터 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된 기관으로 뉴욕 시장과 퀸즈 구청장이 교대로 임명하는 19명의 재단 이사회 이사들에게 자문을 받고 있다. 시장, 대변인, 감사관, 시의회 의장과 구청장은 자동 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62개의 분관과 7곳의 성인 영어 교육센터와 2곳의 가족 영어 교육센터를 통해 서비스 등의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

- 1 우드브릿지 네이버후드 도서관
- 2 브루클린 만화 자료
- 3 퀸즈 도서관 디스커버리 센터
- 4 해리 벨라폰테 115번지 도서관의 그래픽 노블
- 5 뉴욕 공공 도서관의 드윌러스 정기간행물실



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퀸즈 도서관의 모습 중 인상적인 것은 도서대출 자가 반납기였다. 도서대출 반납기를 통해 반납된 도서는 반납과 동시에 콘텐츠 벨트를 통해 이동되며, 이동된 도서는 자동 분류되어 자료 배가를 용이하게 한다.

해리 벨라폰테 115번가 도서관은 1908년 앤드류 카네기의 기부로 설립이 된 도서관으로 1980년 국내적 명소로 지정되고, 2017년 시민운동가이자 가수인 해리 벨라폰테를 기념하기 위해 그의 이름으로 도서관 명칭을 변경하였다. 해리 벨라폰테 115번가 도서관은 잠재적 고객을 미리 분석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고 찾아 제공해줌으로 이용자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평일 오전에는 영아들을 위한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다소 소란스럽지만 누구도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책’이 주인공이 아닌 ‘사용자’를 주인공으로 하고, 사람에 가치를 둔 도서관이라는 점이 감명 깊었다. 손을 뻗으면 쉽게 닿을 수 있는 친구처럼 가까운 상대가 도서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도서관에서 사서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표정이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해 보였다. 미팅 후 ‘힘들 때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오히려 의아해했다. 책이 좋아서, 아이들이 좋아서 사서라는 직업을 택했다는 그들에게서 열정과 자부심을 보았다. 행복해하는 그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웠다. 처음 사서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책이 좋아서, 아이들이 좋아서 선택했었나’하는 생각을 하며,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 시작은 그렇지 못했지만 지금은 책이 좋고 도서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다. 몇 년전 이용자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사서라서 참 좋으시겠어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시잖아요.” 이 말은 언제나 기분을 좋게 한다. 도서관은 내게 행복을 주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 행복을 전달하고 있으니 말이다.



무엇이 삶을 예술로 만드는가!

건축과 미술, 음악 등 삶에 녹아든
유럽의 예술

글 이미숙(문화사업본부 사광방송영업팀)

프랑크베르츠바흐가 말하는 일상을 창조적 순간들로 경험하는 기술!
그것이 내게도 일어나다니!
3월, 한국 문화예술회관 연합회의 문예회관 종사자 해외 연수에 참여하게 된 사건을 말한다. 전국 204개 문예회관 중 15개 기관의 종사자 선발에 선정되어 건축과 미술, 음악 등 그들의 삶에 녹아든 예술과 조우하고 삶을 넘어 내가 책임지고 있는 공간 개념의 환기를 기대로 떠난 해외 연수였다. 이는 부평구문화재단의 2017년 예산 중 직원들의 선진사례견학 등으로 힘들게 만들어낸 예산이다. 그 첫 수혜자가 된다는 것은 행운과 동시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연수 기간 동안 무엇으로 인해 삶이 예술로 만들어지는지 고찰했고, 동시에 나의 심미적 감각의 수준을 높이는 기회를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3월 29일에 시작해 4월 6일 돌아오는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 독일의 뮌헨,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와 비엔나를 방문하는 등 숨 가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첫 일정으로 우리는 가르니에오페라극장을 찾았다. 오페라 가르니에는 1923년 공식 문화재로 지정된 신바로크양식이 유명한데, 그 화려함은 세계적으로 유명해 공연관람이 아니어도 극장투어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줄 선 관광객들을 볼 수 있다. 저녁에 오페라 <Trompe-la-mort(트롬프 라 모르)>를 관람하기 위해 오페라 가르니에를 다시 찾았다. 극장은 아침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몽환적이라는 표현이 공간에서도 느껴졌다. 예술가의 손길이 닿은 벽과 천장에는 빛의 아우라가 번지고 영롱한 소리로 삼페인 잔을 부딪치는 은발의 관객들이 인상적이었다.
오페라 <Trompe-la-mort>는 세 시간 동안 휴식시간 없이 이어졌다. 역사적 시간의 터널을 지나 만나게 된 낯선 나라의 예술에서 오페라에 익숙지 않은 관람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16세기부터 시작된 농익은 오페라 취향에는 실제 세트나 화려한 의상, 분장 등은 그다지 필요치 않아 보였다. 오랜 시간 공들인 오페라 가수만 있다면 그들은 '브라보'를 끌어낼

수 있었다. 오페라의 관습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 같은 새로운 형식, 현대적이고 그로테스크한 무대 등은 프랑스 오페라가 긴 세월을 지나는 동안 진화를 거듭하며 얻어낸 결과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고민한다. 1960년부터 파리에서는 비싸고 시설이 낙후된 오페라 가르니에를 대체할 현대식 오페라 극장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극장이 있었음에도 프랑스의 오페라 극장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킬 수 없었는지 700여 명이 참여한 건축 공모를 거쳐 캐나다 출신의 신예 건축가 '카를로스 오토'에 의해 건설된 바스티유 극장이 1989년 7월 개관했다.
파리에서 두 번째로 만난 바스티유 극장은 지상 80m, 지하 30m 규모의 동그런 형태의 현대식 대형 건물에 전면은 투명 유리를 설치했다. 1,200m의 공간에 높이 20m, 길이 40m의 객석은 3개 층 좌우 2,745석이 있고 모든 좌석이 시선을 방해받지 않고 동일한 음향을 전달받는다. 이 극장이 대단했던 것은 객석이나 외관이 가진 거대함이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공연은 단체가 만들고 극장은 공간을 내어주는 형태가 아니라 극장이 모든 창작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이었다. 이 공간의 무대기술자는 100명이 넘는다. 극장 인데도 상주하는 조각가가 있으며 미술가, 재봉사, 헤어디자이너까지 직원으로 두고 있다. 리허설은 극장에서 이뤄지는데 메인 무대에 다른 공연의 세트가 있더라도 가능하다. 무대 전면을 위에서 본다고 가정할 때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 공연 당시와 동일하게 세트를 세운 상태에서 리허설을 진행한다. 무려 4개의 작품이 동시에 공연된다. 관객이 보는 극장이 전부가 아닌 공연이 만들어지는 작업 공간이 그 몇 배가 된다는 것과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치밀하게 계획된 시설과 장비 등이 설치되려면 얼마만큼의 고민과 정성을 거쳤을지, 그 고민의 시간을 허락하는 이들의 여유와 당연함이 부러웠다. 무대 스텝 경험이 있는 필자의 히스토리 때문에 그 부러움은 더 절실했을지 모르겠지만 극장 건축물의 역사적 배경과 예술적 가치가 아니라 창작자를 위해 모든 것을 담아내려 한 그 정성은 누

구라도 감탄하게 될 것이다.
화려한 프랑스를 지나 투박한 나라 독일에 들어섰다. 독일은 나에게 그저 음악과 문학, 철학을 말하는 인문학이 강한 나라였다. 문학적으로 풍부한 생활권으로 다양한 작가와 철학자들을 배출했다. 괴테와 실러, 토마스 만과 헤르만 헤세 등의 작가와 하이네, 릴케 등의 시인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또한 오스트리아와 함께 전 세계 클래식 음악가의 태반을 배출시킨 음악의 나라로 바흐와 헨델, 하이든과 모차르트, 슈베르트, 슈만, 바그너와 베토벤 등 세계 거장의 음악가가 모두 독일 출신이다. 실제로 독일인에게는 지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문화국민'이라는 자랑스러운 칭호가 붙었다. 독일 뮌헨에는 바이에른 국립극장이 있다. 1818년 설립된 이 공연장은 재정적 어려움과 후원의 부재, 전쟁 등으로 건설과 재건을 거듭하며 1818년 10월 개관되었다. 그러나 1823년 1월 공연 중 무대세트에서 시작된 화재로 인해 다시 한 번 좌절을 겪으며 2년 만에 재건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극장은 또다시 파괴된다. 재건의 비용은 국회의 반대에 부딪혔고 당시 도시 계획가들은 도심에 더 나은 교통과 서비스를 위한 공간을 만들 고자 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폐허가 된 극장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과정 속에 시민단체(Friends of the National theater)가 조직되고 추가자금을 모아 외관은 옛 모습을 그대로 재연하고 내부는 현대식으로 재건하는 사업이 20여 년만에 성공하게 된다.
연수 과정은 오전에 극장을 투어하고 낮 동안 일반 관광지나 또 다른 기관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뮌헨에서는 오전에 바이에른 국립극장 방문과 더불어 '시즌 북 프리뷰'에 참가했다. 바이에른 국립극장이 2017년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지를 관객에게 먼저 설명하는 행사였는데 티켓을 구매하는 것임에도 만석이 라는 기현상을 볼 수 있었다.
오전 10시, 2,200석을 가득 메운 공연장의 스크린에는 시즌 북 겉표지가 띄워져 있었고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1 오페라 가르니에 전경
2 가르니에 내부
3 바스티유 오페라극장 전경
4 바스티유 오페라극장 내부

곧이어 무대로 깔끔한 회색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등장하고 이내 객석에서는 환호성을 보냈다. 바이에른 극장장인 그는 유쾌한 농담과 예의를 갖춰 인사를 하고 시즌북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는 또다시 멍해지고 말았다. 펼쳐볼 수 없게 디자인된 시즌북은 가운데를 살짝 찢어야만 볼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정한 2017년 바이에른 국립극장의 오페라단, 오케스트라단, 발레단은 "당신의 상처를 보여줘"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졌다는 것이다. 시즌북을 찢어 상처를 내야만 모두의 상처를 만나고 위로하며 보듬을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내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발레 예술감독이 차례로 등장했고 영상에는 수석 오페라 가수와 수석 연주가, 발레단이 등장했다. 그들의 인터뷰가 이어질 때마다 아이들을 만난 소녀 같은 환호가 뒤따랐다. 프리뷰가 끝나고 약 2유로의 시즌북을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섰다. 이 시즌북을 공금해 할 사람들이 떠올라 여유 있게 구매하려 했다. 그러나 품절이 되고 말았다. 아쉬운 마음에 두리번거리다 다른 층에서 또 다른 시즌북 줄을 찾았다. 뒷사람들을 배려해야 했기에 두 권만 집어 들었다.
뮌헨은 여러가지로 감동이었다. 여러 기관과 극장을 방문했지만 우리를 위해 브리핑 시간을 따로 만들어준 유일한 곳이었으며, 우리를 맞이하는 테이블에는 마카롱과 다양한 샌드위치 그리고 '시즌북'이 놓여 있었다. 자신을 바이에른 국립극장 마케팅 담당자라고 소개한 팀장은 스크린에 적힌 데이터를 잘 설명해 주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바이에른 국립극장은 1년여 동안 451회 공연이 울려지며 방문자 수는 560만 명에 달하고 객석 점유율 또한 96%에 이른다고 한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차원에서 국민에게 1인당 지원 금액이 무려 117유로나 되는 것의 반증이라 하겠다. 그는 이 상황을 유지하는 마케팅 전략 3가지를 꺼내 놓았다. 첫 번째는 점유율이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관객, 그리고 세 번째로 이미지를 꼽았다. 점유율을 고민하자면 새로운 관객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자면 바이에른의 새로운 이미지가 뒤이어 연구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이에 따른 운영방안



을 제시했는데 ‘인구통계학의 변화를 주시하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처하는 것’, ‘이벤트, 즉 실황 연주를 1년 10회 이상 진행하여 전 세계를 자신들의 예술로 공감하게 하는 것’ 등이었다. 저녁이 되어 오페라 <Andrea Chenier>를 관람하기 위해 오전에 들렀던 바이에른 국립극장을 다시 찾았다. 바로 이 시간! 프랑스보다 더 화려한 독일 뮌헨 관객들의 모습을 마주했다. 오페라 가르니에는 공연 전 샴페인과 개인적 대화의 시간을 가진 후 공연에 집중했다면 독일 바이에른 국립극장의 오페라는 중간에 무려 40분이나 되는 휴식시간으로 동행한 사람들과 가벼운 샴페인을 마시며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급하게 입장해서 잠깐 화장실이나 빠르게 다녀와야 하는 국내 현실과는 다른 여유로운 이들의 문화가 유럽과 아시아의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우리와는 멀게 느껴진다. 오전에 극장 투어를 하고 프리뷰에 참석했지만 1층 객석의 길이는 생각지도 못했었다. 공연 중에 잘 일어나는 편은 아니지만 의도치 않은 현상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객석 한 열이 어찌나 길던지 중간에 일어나게 된다면 무척 민망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공연의 무대 디자인은 발코니석에 앉은 관객도 불편함 없이 배우의 표정까지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웠다. 2층으로 제작된 무대는 옆으로 이동하며 다양한 공간 연출로 관객을 프랑스 혁명 당시로 데려다 놓는다. 이렇게 현실감 있는 무대는 낯선 이방인의 이해를 돕는 큰 역할을 해낸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빠져든 1부가 끝나고 샴페인과 함께하는 40여 분의 휴식도 끝났다. 2부 시작을 기다리는데 관객들은 한 열의 관객이 다 앉을 때까지 앉지 않고 자리 앞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간격이 좁은 객석을 탓하지 않는다. 모두가 훌륭했기에 어디 한군데 실수 없이 그 긴 호흡을 함께 하는 많은 출연자와 무대 뒤 사람들이 존경스럽기만 했다. 박수가 끊이질 않는다. 그만큼의 답을 보내는 출연진!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공간에 내가 있다는 것이 감격이었을 뿐이었다. 뮌헨에서 버스로 다섯 시간을 이동해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로 향했다. 초록의 넓은 들판을 지나면서 목가적인 풍경이 루브르 벽에 걸렸던 명화와 같다고 느끼는 동시에 촌스러운 멀미로 적지 않게 고생할 즈음 맑은 공기를 지닌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도착했다. 이렇게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깊은숨을 들이마셔도 켜잡은 음

악의 본고장 오스트리아, 그중에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너무나도 유명한 시즌 행사다. 그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과 극장을 방문해 관계자를 만났다. 극장으로 들어서자마자 감탄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대령 가족이 합창 대회에서 노래를 마치고 탈출하는 장면을 촬영했던 바로 그 극장이었다. 원래 이곳은 말을 타던 곳인데 극장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절벽을 극장 벽으로 사용하면서 무대를 만든 이색적인 공간으로 울림 또한 대단해 연주자들에게 최고의 자연음을 선사한다. 정말이지 객석에서 가볍게 손뼉을 쳤을 뿐인데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이 공연장은 상시 공연이 있지 않다. 잘츠부르크페스티벌 기간에는 스탭만 무려 3,000여 명이며 페스티벌의 예산은 한화 6,000억에 달한다. 지역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작은 공연은 물론, 1, 2년 전에 예약이 끝난 공연까지 그 가격대도 무척이나 다양하다. 개인 이름이 있는 객석이 보였다. 1년간의 공연을 예매한 자리다. 오지 않더라도 판매되지 않는다. 호텔에서 마케팅 일환으로 구입해 손님에게 선물한다. 특이한 점은 이 자리가 객석 중앙이 아닌, 가장자리에 있다는 것이다. 이 자리를

예매한 VIP들은 자신들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서 생긴 현상이라고 한다. 모차르트의 생가와 잘츠부르크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게트라이트 거리’를 지나가며 비엔나로 향했다. <맨 오브 라만차>, <에비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캣츠>, <오페라의 유령>, <시카고>, <엘리자베스>, <그리스>, <지킬 앤 하이드>, <레미제라블>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컬들이 비엔나극장협회가 제작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이 협회가 운영하는 3곳의 극장인 빈 극장, 라이몬트 극장, 로나허 극장 중 우리가 방문한 라이몬트 극장은 지금까지 방문했던 극장 중 가장 소박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라이몬트 극장은 시민단체가 설립했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다. 유럽 대부분의 극장은 한 번 이상의 화재로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조명의 역할을 하는 촛불 때문이다. 그 이유로 라이몬트 극장의 세트는 나무 무늬를 입힌 철을 소재로 제작했다. 이번 공연은 과거 공연장 모습을 그대로 재연한 것으로 당시 조명을 보여주기 위해 프레임에 설치된 수십 개의 흔들리는 모형 촛대를 비롯해 바닥이 회전하는 무대가 아닌, 프레임이 회전할 때마다 극 중의 공간이 바뀌는 좁은 극장에서 최대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오래된 전통, 우수한 자원, 풍부한 지원과 다양한 작품의 레퍼토리를 지닌 비엔나 국립극장은 세계 유수의 오페라하우스 중 하나다. 매 시즌마다 60가지가 넘는 오페라와 발레 공연을 350회나 개최한다. 1869년 5월 25일, 황제 프란츠 요셉과 엘리자베스 황제의 앞에서 모차르트의 <DON JUAN>과 함께 엄숙하게 문을 열었다고 한다. 극장을 둘러보면서 느낀 것은 거리낌 없이 포옹하고 얼굴을 마주하는 인사에 권위적인 느낌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극장 곳곳을 둘러보던 중 카라얀과 구스타프 말러의 조각 앞에서 극장은 그들의 업적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비엔나에서 오페라는 매우 중요한 장르이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대단하기



유럽인에게 공연장은 사교장이었고
지속하는데 필요한 예술과 공간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수세기 동안 계속해왔다.
시민들은 시민단체를 조직하여
후원금을 조성하고 정부는 시민을 향해
의견을 물어 재건하면서
자신들의 문화와 예술을 계승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 부분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

- 1 바이에른 국립극장 내부
- 2 시즌북
- 3 네임 객석
- 4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오페라극장
- 5 비엔나 라이몬트극장 외부
- 6 비엔나 라이몬트극장 회전 프레임

에 그의 역할 역시 자금심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팔짱 끼고 앉아 예술가들을 예리하게 바라보며 내가 낸 돈의 가치를 잘 보여 줄 것인지를 판단한다. 이것은 공연을 즐기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 공연장은 사교장이었고 이것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예술과 공간에 대한 고민과 성찰은 세기를 거듭하며 계속해왔다. 시민들은 전쟁 등으로 황폐해진 극장을 시민 단체를 조직하여 후원금을 조성하고 정부는 일방적 통보가 아닌, 시민을 향해 의견을 물어 재건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자신들의 문화와 예술을 계승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소통이며, 능동적 자세라고 생각한다. 여러 기관을 방문하면서 관계자들에게 물었다. 다음 세대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어떠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그러나 내가 안고 떠난 물음이 무색하게도 ‘답은 없다’고 대답했다. 다만 현재 우리가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지속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자란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그들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말이다. 유럽에서도 젊은 세대를 오페라 또는 예술 공간으로 끌어들이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큰 규모의 극장을 10명도 채 되지 않는 무대 인력이 운영하는 현실과 단 몇 명만의 잔 걸음으로 연명되는 극장 운영으로 힘든 우리의 현실은 어떤 이방인의 방문에도 자랑으로 대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공간, 그래서 찾는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공간, 그러기에 행복은 바이러스라 하지 않던가! 부평구문화재단이 꿈꾸는 공간을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다. 행복한 고민의 시작이다. 삶에는 커다란 2가지 실망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갖고자 하는 것을 전혀 얻지 못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라고 한다. 경험하고 싶어 했던 그들의 삶에 깃든 예술의 흔적을 만나 우리의 현실에 실망했지만 다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삶을 예술로 만드는 기술을 깨달았으므로 결코 실망이 아니며, 심미적 감각은 이 순간을 기록하며 발현될 것이라는 데 한 치의 의심도 없다.



인사이드 부평

언제라도 마실가고 싶은 곳,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가고 싶은 곳,
흥겨운 가락과 콘텐츠가 넘실대는 곳,
부평아트센터에서는 언제나 볼 것은 많고
몸은 하나인지라 아쉽기만 하다.

Viewfinder

찾아가는 문화마실 언플러그드
음악감수성교육 '오디'

Zoom In

양희은 콘서트
부평아트센터 개관 7주년 기념음악회
부평키즈페스티벌^{BUKIF} 초록누리축제

News

모두가 함께하는 예술, 부평 POP-UP 피아노
세움 SE:UM, 세계에 한국적 음악을 세우다
BUKIF 어린이 그리기 대회 시상
구립 단체 현황 및 수상 내역
부평구 내 29곳 유희공간 개선
부평구문화재단·교보생명, 업무 교류 협약식 개최



내 집 앞 5분 거리에 있었으면 좋은 것은 무엇일까. 빵집, 은행, 슈퍼마켓, 서점, 꽃집...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부터 취미까지 바라는 것은 각양각색일 것이다. 그러나 공연장이라면? 설마 공연장이 내 집 앞 5분 거리에 있다면 어떨까? 그것을 바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좋아하지 않아서라기 보다는 연감생심(焉敢生心)으로. 그런데 부평구문화재단이 그 어려운 걸 해냈다.



내 집 앞 5분 거리

2017 찾아가는 문화마실 언플러그드

글 편집부
사진 전석병



- 1회차** 칸 - 관객과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는 드림 서클 진행
- 2회차** 씨 없는 수박 김대중 &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 음악성과 대중성을 확보한 한국대중음악상 노미네이션된 가수
- 3회차** 최고은 & 락푸른하늘 - 여성 싱어송라이터의 대표주자
- 4회차** 홍갑 & 하현진 & 서건호 - 어쿠스틱 기타 클라보레이션
- 5회차** 대니 보이 앤 더 캐리지스 & 타틀즈 - 컨트리와 펑크의 멋과 국내 비틀스 트리뷰트 밴드
- 6회차** 도마 & 허클베리 핀 - 포크뮤지션과 인디음악의 베테랑



‘찾아가는 문화마실 인플러그드’를 이름으로 ‘내 집 앞 5분 거리’를 콘셉트로 지역 곳곳에 문화예술 공연을 확산하고자 기획했다. 상반기에 총 6회 공연을 실시하는 동안 집 앞 마실 나온 부평구민들은 황재 같은 감동과 즐거움에 연신 손뼉을 쳤다. 첫 공연은 4월 12일 오후 7시30분 부개문화사랑방에서 진행되었는데 칸(KAN)이 출연해 아프리카 리듬 악기로 흥겨운 리듬을 선물했다. 두 번째 공연은 4월 26일에 갈산역 4번 출구 앞 우림라이온스밸리 야외무대에서 씨 없는 수박 김대중과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가 공연했다. 세 번째는 5월 10일 최고은과 락푸른하늘의 공연이 이어졌고, 5월 31일에는 부평역 썬크빅문고에서 홍갑, 블루스 뮤지션 하현진, 기타리스트 서건호의 연주가 이어졌다. 6월 14일에는 썬크빅문고에서 밴드 대니 보이 앤 더 캐리지스와 타틀즈의 공연이 6월 28일에는 우림라이온스밸리 야외무대에서 도마-허클베리핀의 공연이 펼쳐졌다. 지난 5월 31일, 인천 부평역 썬크빅문고 내 특설 무대에 인디 뮤지션 홍갑, 하현진,

서건호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찾아가는 문화마실의 4번째 순서로 열린 공연에 참석하기 위해 말이다. 2017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포크 음반 후보에 올랐던 홍갑, 젊은이의 솔직담백한 가사로 노래하는 블루스 뮤지션 하현진, 유명 포털 사이트에 노출되며 이름을 알린 기타리스트 서건호 등이 펼친 서정적인 무대는 조용히 독서를 위해 서점을 찾은 사람들과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부평지역에서 만남의 장소로 손꼽히는 부평 썬크빅문고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길을 향하는 사람들, 혼자 마실을 나온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다. 찾아가는 문화마실 상반기 프로젝트는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다른 지역의 아티스트를 초대해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를 구민에게 소개했다면 8월부터 진행되는 찾아가는 문화마실 하반기 프로젝트는 부평구와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기획자 및 단체가 제안하는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32-500-2065

INTERVIEW



이재희

— 인터넷에서 공연 소식을 보고 시간을 내서 왔어요. 서점에서 공연한다고 해서 신기했는데 생각보다 책과 음악이 너무 잘 맞네요. 대중적인 곡이 아니라 음악성이 높은 음악을 듣게 되어서 더 좋아요. 부평이 음악도시라는 게 실감이 납니다.



최연심, 이원주 부부

— 산책하러 나왔다가 책 한 권 사려고 들어왔는데 공연을 하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저희 부부는 인디밴드 공연을 즐기는 편인데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평소 좋아하는 가수들의 노래가 나와서 좋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니 음악이 더욱 새롭게 들리고 멋집니다.



“우리 아이가 음악으로 달라졌어요”

음악감수성교육 ‘오디’

모차르트는 5세가 되기 전 미뉴에트와 트리오를 30일 만에 익히고 6세부터는 연주 여행을 다녔다고 한다. 혹시 우리 아이도 모차르트 같은 재능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숨겨진 재능이라면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요즘 들어 아이들의 감성지수(EQ)와 표현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교육법이 등장하고 있다. 그중 음악적 소재를 통한 교육은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숨겨진 재능을 찾는 일도, 교육을 통해 새로운 재능을 계발하는 일도 가능하게 한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지난 3월 16일부터 5월 25일까지 10주간 2017년 상반기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 <음악감수성교육 ‘오디’>를 실시해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과 칭찬을 받았다. 4, 5세 유아와 엄마가 함께 참여한 이번 교육은 부평문화사랑방(갈산2동 주민센터 3층)에서 진행했다. ‘오디’는 에드윈 고든(Edwin Gordon, 1927~)의 음악교수법을 기반으로(에드윈 고든은 오디에이션을 소리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음악을 마음속으로 듣고 이해할 때 일어나는 것으로 정의한다.) 2인 교사가 상호작용하며 유아의 자발적 학습을 끌어낸다. ‘오디’는 육성의 노래를 화음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화성감수성을 키우고 다양한 박자와 조성의 음악을 경험하게 하여 풍성한 음악적 환경을 제공해 아이의 감수성뿐만 아니라 예술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했다.

놀이와 학습의 절묘한 만남

지난 5월 25일 마지막 ‘오디’ 수업은 이야기가 있는 놀이음악 <야! 비 온다>를 교육했다. 아이들에게 소품을 통해 악기 소리를 듣게 했고 상상을 통해 무지개 비를 맞아보고, 여러 사람을 축복하는 과정을 통해 남을 먼저 사랑해야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했다. 이날 참석한 아이들은 엄마, 할머니와 함께했는데 속삭이며 강요하는 오디 선생님의 한 마디 한 마디를 놓칠새라 연신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때로는 뛰어다니며 소리 지르며 노래 부르다가도 이내 흩어진 소품을 재빠르게 정리하는 모습에서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기는 자세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오디’ 교육은 <만나서 반가워요>, <달이 알을 낳아요>, <봄이 오는 소리>, <괜찮아(이야기가 있는 음악놀이)>, <바람개비 사세요>, <풍선 불아요>, <가족 합창단> 등 매번 다른 ‘오디’ 노래와 음악체험을 통해 다양한 리듬과 패턴의 노래를 아이들에게 익히게 했다. ‘오디’ 노래는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함께 부를 수 있는 예쁜 곡들로 흥미진진한 동화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소재이다. 특히 ‘바람바라’와 같이 반복되는 말이 많은데 특별한 가사가 없이 들을 때 음악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음악학습 이론에 따른 것이다. ‘오디’ 교사는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가사를 만들어 노래하기도 한다. ‘오디’ 수업은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한 사람씩 물을 먹는 시간을 주는데 물 먹기 전에 선생님과 함께 “밤밤밤~” 노래를 하게 된다. 이것은 ‘오디’ 수업의 연장인데 음악적인 단어를 학습하는 방법이다.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면 문장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음악의 문장은 음악의 창작, 곧 작곡을 말한다. 수업이 모두 끝나자 아이들은 모두 ‘오디 어린이 임명장’을 받았다. 아이들은 저마다 임명장을 받아 들고 얼굴에는 뿌듯한 자랑이 묻어났다. 이번 ‘오디’ 수업에 참가한 엄마들은 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과정에서 함께 즐거웠다는 것에 만족하며 수업을 통해 아이들의 집중도를 높였으며 차례를 기다리고 양보하는 공동체 의식을 배웠다고 입을 모은다.



‘오디’는 육성의 노래를 화음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화성감수성을 키우고 다양한 박자와 조성의 음악을 경험하게 하여 풍성한 음악적 환경을 제공해 아이의 감수성뿐만 아니라 예술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 | | | |
|--|--|--|
| <p>① 박주연 어머니
“10번의 교육을 통해 아이와 함께 참여하면서 제 스스로가 정서적으로 힐링이 되었어요. 오디 음악이 아이들과 잘 맞아 참여도가 높았다는 것에 만족합니다.”</p> | <p>③ 주민지 선생님
“혼자 여러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 화음도 넣어야 하는 입장이라 어렵긴 하지만 아이들에게 악기 연주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엄마와 함께 교육을 열어주는 것은 부평이 처음일 텐데 여러 지역에 부평이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디 수업의 장점은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p> | <p>④ 노혜영 선생님
“아이들과 어머니들 모두 처음엔 집중하기 어려워 했는데 이제는 오디 노래가 좋다고 말씀하세요. 매번 노래가 다르지만 아이들이 금세 반응하고 익히는 것을 보면 역시 음악에는 마음이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소리로 노래를 해도 아이들은 집중하며 잘 따라옵니다. 이제는 어머니들도 즐기시는 것을 보면 이것이 오디의 힘이 아닐까요?”</p> |
|--|--|--|



언제나 푸르른 젊음, 인생 그리고 희망

양희은 콘서트

어김없이 푸르고 화사한 봄날, 부평아트센터에
 영원히 푸르른 것 같은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
 지난 3월 25일(토)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무대에서
 <양희은 콘서트>가 열렸다. 2층까지 전석 매진된
 이번 공연은 가수 양희은과 함께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눈물을 머금은 시간이었다.
 양희은 씨는 자신의 곡과 자신이 감명받은 곡을 스토리 있게
 배치해 인생의 사랑과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했다.



콘서트가 열리기 전부터 양희은 씨의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은 설렘 속에서 연신 긴장하고 있었다.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오셨는데 그도 그럴 것이 양희은이 주는 울림이
 어머니의 감성과 만나고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들 세대가
 젊었을 때 양희은은 그들의 '아이유'였으리라. 차이라면
 지금의 양희은이 젊은 세대에게 주는 영향력이다. 1970년대를
 휘어잡은 포크 음악 대표 여가수로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그녀, 그녀의 노래는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마음을 설레게 하고
 감동을 안겨준다.

공연이 시작되고 양희은은 '내 나이 마흔 살에는' 등 1990년대
 이후에 발표된 노래들을 먼저 불렀다. 첫 데뷔부터 지금까지
 양희은만의 색깔을 내며 발표해온 노래들이 펼쳐지면서
 가슴 떨리는 감동이 밀려왔다. 중간중간 그녀는 특유의 톡톡
 던지는 어투로 삶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관객들은
 서로에게 위로와 사랑의 눈빛을 전했다.



INTERVIEW



이상미, 윤영실, 안정분

우리는 친구 사이입니다. 양희은은 항상 기대가 되는 가수입니다. 그 노래를 흥얼거리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너무 진한 감동이 밀려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천 산정고 장혜정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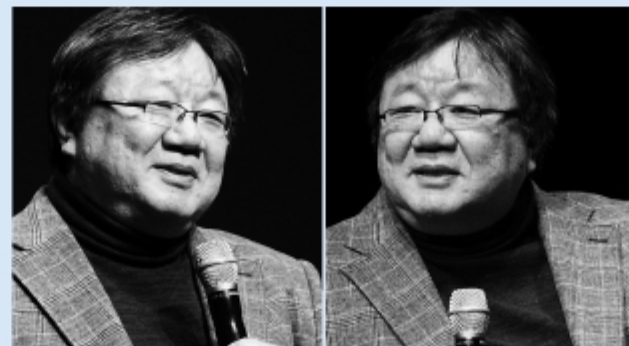
산정고등학교는 매년 지역연계로 지역문화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공연을 보고 2학년 창의 특성활동으로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산정고에서는 아이들에게 통기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진로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오늘 공연을 보고 감상보고서까지 작성하는 과제를 주었고 이후 모아진 보고서로 소책자를 만들 예정입니다.

특별 초대손님으로는 양희은 씨의 동생 양희경 씨가 출연해 합동 무대를 선보였고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일곱 송이 수선화'를 함께 불렀다.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관객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자매가 객석을 돌며 함께 노래했는데 이날 객석의 어머님들은 더 이상 관객이 아니라 무대에 함께 출연한 가수였다. 양희은 씨는 '상록수'와 '행복의 나라로'를 부르며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 희망은 있다, 헤치고 나아가 끝내 이길 것이며 우리 함께 행복의 나라로 가자고 노래했다. 그녀의 노래처럼 이제 우리는 힘든 시절을 딛고 언제나 푸르른, 행복한 나라로 갈 것이다. 가수 양희은은 물리적으로는 늙어졌을 수 있으나 그녀의 음악을 들으며 살아오고 자라난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푸르른 가수다. 그래서일까, 언제나 힘든 시절을 그녀의 노래와 함께 겪어왔다. 40여 년간 우리 곁에서 함께한 그녀의 노래가 더없이 고마웠다. 모든 세대를 대변하는 이야기가 담긴 따뜻한 음악으로 관객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한 공연이었기 때문에.



음악평론가 강현의 특별강연

통기타와 청바지 그리고 시대정신



40년 전 어느 날 우리나라 가요계에 돌풍이 불어왔다. 청바지에 긴 생머리 그리고 통기타를 맨 한 여대생 때문이었다. 깨끗한 음색을 가진 그녀는 노래만으로 그 시대를 쥐락펴락했고 철웅성 같았던 가요계의 흐름을 깨뜨리기까지 했다. 양희은이 우리 대중음악계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청바지와 운동화, 통기타가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음악평론가 강현에게서 들었다. 지난 3월 25일 양희은 콘서트에 앞서 음악평론가 강현의 <통기타와 청바지 그리고 시대정신> 강연이 달누리극장에서 개최되었다.

강연회에는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강현 씨는 '통기타는, 어른들의 문화를 같이 누렸던 대중가요에서 애도 어른도 아닌

청년을 세대 분리, 청년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시대별로 유행하는 노래들을 보면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는데 1971년 대통령부정선거를 겪으며 양희은의 '아침이슬'은 대학가에서 입에서 입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시대의 상징이 된 '아침이슬'은 지극히 사적인, 연약한 청년지식인의 자기 번민을 담은 노래인데 이 노래가 시대적인 암울한 상황과 맞물려, 패배감에 놓여 있던 엘리트 집단 대학생들의 마음을 휘어잡으며 시대의 상징이 되었다고 했다. 또한 양희은은 어떠한 기교나 창법도 쓰지 않는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로 독립된 존재감을 부각했으며 화장기 없는 얼굴에 청바지를 입은 양희은의 모습을 담은 레코드 재킷 사진을 통해 청년문화세대를 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생일 축하합니다”

부평아트센터 개관 7주년 기념음악회

Congratulations on the 7th



부평지역의 문화예술을 펼치는 장(場)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는 부평아트센터가 벌써 개관 7주년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감에 더욱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부평아트센터를 축하하는 잔치가 4월 8일, 오후 5시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기념음악회로 열렸다. 황금 같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부평아트센터를 축하하러 온 많은 관객을 위해 클래식,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봄의 만찬'을 푸짐하게 차려냈다.

모스틀리-TNS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음악회 문을 열었는데 <J. Strauss II - Voices of Spring Waltz>와 피아니스트 조재혁과 함께하는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 피아노 협주곡 2번>까지 화사한 봄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었다.

오케스트라 연주에 이어 바리톤 우주호가 <현제명 - 나물캐는 처녀>, <시저 안드레아 빅시오 - 맘마 쏜 판또 펠리체>, <조르주 비제 - 투우사의 노래 오페라 카르멘 中> 등 세 곡을 연주했다. 우주호 씨는 노래의 대한 설명을 곁들였고 '투우사의 노래'를 통해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후 뮤지컬 배우 윤형렬과 차지연의 공연이 열기를 더했는데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中 - Impossible Dream>,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中 - 대성당들의 시대>, <뮤지컬 서편제 中 - 살다 보면>, <뮤지컬 맘마미아 中 - Dancing Queen>, <you raise me up>, <담배가게 아가씨>, <A Whole New world> 등 가창력에 감성이 더해지는 감동 가득한 시간이었다.

항상 지역민을 위해 에너지가 넘치고 감성 충만한 공연과 전시를 진행하고 있는 부평아트센터. 개관 7주년 연주회를 관람한 사람들은 앞으로도 더욱 빛나고 더욱 사랑받는 부평아트센터가 되기를 한목소리로 응원했다.



윤정순(83세), 성차순(82세)

우리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옛날부터 함께 영화관이나 연주회에 자주 갔어요. 부평아트센터에서는 감동적인 공연이 자주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오늘 어느 때보다 즐겁고 기분 좋은 공연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아이들의 신나는 놀이터, 꿈터, 생각터

2017 부평키즈페스티벌 BUKIF 초록누리축제

어린 자녀를 둔 부평 주민들은 어린이날에 고민이 없다. 자녀들이 선물을 사달라고 조르지도 않고 놀이동산에 가자고 떼를 쓰지도 않는다. 대신 부평아트센터에 가자고 조른다.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도 예외 없이 부평아트센터에는 자녀의 손을 잡은 수많은 부모님이 몰려들었다.

<2017 부평키즈페스티벌(BUKIF) 초록누리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부평구문화재단은 5월 5일부터 13일까지 부평아트센터 공연장과 야외 광장에서 다양한 공연, 전시, 놀이, 이벤트 등이 가득한 '제4회 부평키즈페스티벌'을 개최했고 어린이날은 페스티벌의 첫날이었다. 부모들은 행사가 열리는 야외 광장에 일찌감치 그늘막을 설치하고 돛자리 위에서 간단한 간식을 나누었고, 아이들은 갖가지 다양한 행사와 놀이가 시작되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이번 <부평키즈페스티벌 초록누리축제>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아이들 눈높이를 만족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는데 흥미진진한 미술 공예, 놀이 등의 체험과 공연이 눈길을 끌었다.



아트트리,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부평구청소년수련관, 부평구문화재단 도서관본부 등은 페이스 페인팅, 나만의 선캡(SUNCap) 만들기, 울리볼리 표정 인형 날다, 뮤직시티 세라믹 목걸이 만들기, 펠러비즈 만들기, 도서관 밖 도서관 & 도서관기증 등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참여 이벤트를 펼쳤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벤트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한 부모님들의 만족도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문화와복지분과 주최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초등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제3회 부평사랑 글짓기 대회'가 진행되었다. '맹꽁이', '부평역', '나비공원'이라는 주제로 시와 수필을 쓰는 행사는 아이들다운 상상력으로 한 자 한 자 써 내려가는 진지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구름마당 잔디 무대에서는 한국 대표 너버벌 퍼포먼스 <난타 하이라이트 공연>, 어린이들로 팀을 이룬 키즈들 <영기스트>와 <유소 걸>의 댄스 공연 등이 이어져 사람들의 눈과 귀를 행복하게 했다. 또한 다양한 음악을 새롭게 해석하고 들려준 <조이브라스밴드>와 폭소 클래식 <암모암모>의 공연, <CTS 부평소년 소녀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져 가족 관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선사했다.



광장 중앙에는 '배틀 로봇 라이더'라는 로봇 놀이기구를 설치해 모처럼 동심으로 돌아간 아빠와 아이의 정겨운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무대에서 공연이 펼쳐지는 한쪽에서는 긴 봉을 이용한 서커스 공연이 벌어졌다. 봉 끝부분까지 올라가 아슬아슬한 고난도의 동작을 펼치는 연기자들을 보며 아이들은 연신 손에 땀을 대다며 즐거워했다.





달누리극장 앞에는 피아노를 설치해 누구나 즉흥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부평아트센터 곳곳에서는 부키프 어린이 그리기 대회에 참가하는 어린 화가들이 '꿈꾸는 마을'이라는 주제로 자신들의 실력을 자랑했다.



해누리극장 로비에는 가족 소원 나무에 소원 걸기 이벤트가 개최되어 아이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점, 감사할 이야기 등을 나무에 걸어보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달누리극장 앞에는 룰렛을 돌리면 그에 해당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개최되었고, 매 시간마다 즐거운 선물대잔치가 벌어졌다.

INTERVIEW



김햇님, 김보철 아빠, 김한울 아들

피아노도 치고 룰렛도 돌리고
이제 좀 쉬었다가 체험하려고요. 음악소리도
좋은데 서커스는 너무 아슬아슬하고 신 나요.



김효겸 6살, 최진경 어머니

이 동네 살아서 매년 어린이날 참가합니다.
체험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오늘은 책을
기증하면 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에 참여했고
이제 나머지 것들도 천천히 하고 가려고요.
부키프 축제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고 체험도 유익한 것이 많아요.



유소희, 아들 노현우 7살, 노건우 9살

부키프 어린이 그리기 대회에 4번 정도
참가했어요. 행사도 매회 퀄리티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데 집중해서 다른 이벤트에
참여 못 하는 것이 아쉽지만 아이들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니까 만족합니다. 비록 수상은
못 했지만 행사 참여하는 자체가 좋아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세상 명랑한

‘명랑운동회’

인천부평구문화재단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아이와 어른 모두 미술관에서 쉽고 재미있게 보고 느끼고 뛰어놀 수 있는 전시, ‘명랑운동회 전’을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에서 개최했다. 젊은 작가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지역민과 나누며, 문화적 정서를 나누고자 기획한 전시로 쉽고 재미있게 작품을 보고 작품의 주인공들과 신나게 뛰어놀 수 있게 기획되어 아이와 어른 모두 즐길 수 있는 전시로 평가된다. 전시에 참여한 일러스트레이션 작가들은 예술적 욕심보다는 아이들 눈에 맞춘 그림을 그려냈고 이에 잘 어우러지는 운동 체험도 함께하는 평소에 볼 수 없는 색다른 전시로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이 전시는 ‘놀이터’와 ‘아이 방’을 주제로, 사색하는 공간과 한글, 알파벳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한

전시공간으로 나뉘었다.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활용한 미술관 전시공간은 박세연, 이지은 등 8명의 작가가 한글과 알파벳, 숫자를 두고 창작한 글자 일러스트레이션을 비롯해 작가의 스타일을 드러내는 대표 작품 50여 점의 작품 등으로 구성했다.

명랑운동회 전은 천장부터 내려오는 생명체 같은 조형물을 만나게 되는 것으로 시작되고 이것을 지나면 평소 익숙하게 만났던 캐릭터를 발견한다. 그와 함께 상상력의 세계로 빠진다. 아이들이 쉽게 접하는 한글과 알파벳, 숫자를 모티브로 한 작품들이 나타나고 여우도 만나고 꿈의 길을 걷다가 아이들은 자기만의 상상 속 세계를 만나게 된다. 감상의 공간을 빠져나오면 놀이의 공간을 만나게 된다. 바로 미니운동회인데 허를 넘기, 링 던지기, 줄다리기, 탁구 등 6개의 놀이 운동이 일러스트와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함께 즐기는 부모들까지 무의식중에 장애물을 뛰어넘고 싶어진다. 현대미술·미술관 체험 교육으로 준비한 ‘명랑운동회 전’은 전시 한 달 동안 4,700여 명의 관람객들이 다녀갈 만큼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놀이 감성까지 고집어낸 신선한 발상이 돋보이는 전시였기 때문이라.



누구나
피아노 연주가가
되어 보는 경험,

모두가
함께하는 예술

부평
POP-UP 피아노



피아노학원이나 품격 있는 연주회에서 보았었던 피아노가 만약 예쁘게 페인팅되어 야외에 놓인다면? 지난 5월 13일~14일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에서 그 상상이 실현된 <부평 POP-UP 피아노> 행사에서 '달려라 피아노'를 만나보았다.

아이들의 재능을 키우고 도시의 선율을 만드는 색다른 경험 '달려라 피아노'

'달려라 피아노'는 자주 연주되지 않아서 거실이나 공공시설 등에 방치되어 있던 중고 피아노를 기증받아 아티스트의 손으로 새로 디자인한 뒤, 지역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프로젝트이다. '달려라 피아노'측과 부평구문화재단이 만나 오랜 준비 끝에 개최한 이번 행사는, 부평음악도시 조성사업 중 '음악동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으며, 부평구 주민의 '일상 속 음악 향유'를 목표로 16대의 피아노가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에 설치되었다.



부평아트센터 앞마당에 재미있는 알록달록 피아노 놀이터가 생겼다!

5월 13일과 14일 양일에 진행된 <부평 POP-UP 피아노> 행사 기간 중, 아트센터 광장 곳곳에 알록달록하고 형형색색의 피아노가 뿌려졌고, 아이들과 주민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피아노에 착석해 건반을 두드려보았다. 13시부터는 '종이피아노 만들기', '바닥분필로 음악동네 그리기', '두다다 쿵과의 포토타임', '버블건 행진단'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더욱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야외 광장에서 예정되었던 재즈피아니스트 진보라와 부평구 어린이 8명의 협연은, 아쉽게도 우천으로 인해 해누리극장 로비로 급히 옮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중과의 호흡은 더 돈독해졌는데, 진보라 연주 곡인 'SOUL ME', '소나무', '은교', '아리랑', '사막의 폭풍' 등을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이 오밀조밀 로비에 앉아 모두 빛소리와 함

께 감상하는 운치있는 풍경이 펼쳐졌다. 특히, 바로 이어진 부평구 어린이와 진보라와의 협연은 '웅달샘', '오빠생각', '과수원길', '섬집 아기' 등 평소 친숙한 동요를 즉석에서 협연하여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였다. 미래의 진보라를 꿈꾸는 부평구의 새싹들에게 연신 애정 어린 눈길을 보낸 진보라로 인해 모든 공연은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자칫 우천으로 취소되었으면 모든 이가 아쉬웠을 명공연이었다. 이틀간 진행된 <부평 POP-UP 피아노>를 통해 부평구의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음악을 누린 단초가 되었다고 자평한다. '음악도시 부평'이란 슬로건에 걸맞게, <부평 POP-UP 피아노>는 앞으로도 연결과 소통, 그리고 향유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부평 곳곳에 등장할 예정이다. 어두침침한 버스정류장, 낡아진 공원 벤치 등 그 어디라도 피아노 선율을 통해 음악동네 만들기가 완성될 시점을 기대해본다.

세움 SE:UM, 세계에 한국적 음악을 세우다

부평아트센터의 상주 예술단체인 '문화공작소 세움'은 2011년, 젊은 문화 예술 기획자와 예술가들이 모여 설립한 문화 예술 단체이자 문화 예술 사회적 기업으로 문화 예술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 예술계의 선순환 생태계 확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특히, 2015년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해 현지 언론의 평점 만점을 받았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5개국 12개 도시에 초청을 받아 대한민국 문화 예술의 우수함과 다각적이고 친근한 접근을 통해 파급 효과를 높이고 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젊은 음악 단체로서 부평이 진행하고 있는 음악도시 사업에도 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움'은 예술 단체로서는 이색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주로 기획과 제작, 홍보, 디자인, 시각 공작을 맡은 '문화공작소 세움'의 기획력을 토대로, '세움'과 '지은', '다나루' 같은 연주단들의 공연과 음반을 제작한다. 효과적인 역할 분담을 통하여 공연 제작과 해외 사업, 홍보 활동, 음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기에 소속 아티스트들은 창작자로서 작품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한다. 문화공작소 세움의 완성도 있는 예술 작품의 원동력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예술 시장 안에서 외연을 넓히고 유연한 사고를 통해 예술 활동의 한계를 스스로 극



- 1 코리안브레스 공연
- 2 두바이 공연 후 단체 사진
- 3 두바이에서 펼쳐진 <할락궁이의 모험>
- 4 부평아트센터서 펼쳐진 세움의 공연





두바이에서 펼쳐진 우리 음악 워크숍

복하고 국내외 공연을 통해 존재감을 확장하고 있는 ‘문화공작소 세움’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2015년부터 시작된 대표 작품 <코리안 브레스>와 2017년 5월 한국 공연 단체로는 최초로 부평구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제작 UAE 5개 도시 투어를 이뤄낸 어린이 음악극 <할락궁이의 모험>으로 대표된다.

<코리안 브레스>는 2015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평점 만점, 2015 서울아트마켓 PAMS Choice 선정, 2016 워싱턴 DC 재즈 페스티벌 대한민국 최초 초청작, 2016 UAE 코리아 페스티벌, 2016 나이지리아 페스티벌, 2016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 초청공연 등 다양한 국가와 지역 대표 축제에 초청된 작품이다. <코리안 브레스>는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공식공연 선정 이후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거쳐 현재의 작품을 완성하는 데에 이르렀다. 이들의 음악은 하나로 결집 짓기 힘든 장르로 관계자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다. 유세움 대표는 “세움의 음악은 소리가 온몸을 관통하게 되는 희열을 느끼게



코리안 브레스 공연 포스터

하는 음악이다. 흔히 많은 구성과 개성이 강한 연주자들이 모여 발산하는 독특한 질감의 음악은 신기하게도 마치 원래 존재했던 장르처럼 느껴지는 매력이 있다. 그래서 세움의 음악을 퓨전국악, 크로스오버, 월드뮤직, 재즈, 국악 등 어느 하나의 장르로 설명이 힘들다.”라고 이야기 한다. 또한 부평구문화재단과 함께 제작한 <할락궁이의 모험>은 ‘문화공작소 세움’이 중동권역 진출에

박차를 가한 작품이다. 이는 2016년 UAE 코리아 페스티벌 초청을 통해 가시화되었으며, 2017년 3월 UAE 마더 포 기빙 데이 페스티벌 초청, 2017년 5월에는 한국 공연 단체로는 최초로 UAE 5개 도시 투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최근 UAE 투어에서는 그간, UAE 국가 문화 행사가 두바이와 아부다비에 집중되어진 한계를 극복하고자 UAE 한국문화원과 협력하여 라스알카이마, 움알쿠웨임, 아즈만 등 이른바, UAE의 문화 소외 지역을 찾아가 어린이 음악극 <할락궁이의 모험>과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다.

앞으로 문화공작소 세움은 올해 9월~12월 중동권역 리서치 활동을 위해 UAE로 떠나며, 중동과 아프리카 권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젊은 예술가들의 현실적 해외진출 과제와 시야를 확장하고 문화 예술 활동의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할 때라는 ‘문화공작소 세움’의 생각이 실천되는 시간이 된 것 같다.



“세움의 꿈, 부평의 꿈과 닿아 있습니다”

유세움 문화공작소 세움 대표

문화공작소 세움과 부평, 인천

동인천에서 시작했고 17년 정도 활동했다. 현재 ‘문화공작소 세움’으로 7년째다.

문화공작소 세움의 콘텐츠

‘문화공작소 세움’ 안에 소속된 아티스트의 에이전시 역할을 담당하며 공연 제작, 인큐베이팅과 매니지먼트, 프로듀싱까지 담당한다. 다른 예술 단체와 시스템이 다른데 기획서부터 홍보디자인 마케팅까지 토털서비스를 담당한다. 음악의 장르, 스펙트럼도 다르다. 축제 공연기획을 진행하는 등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대부분 한국음악을 기반으로 한 장르를 개발하고 있으며, 한국 음악 중심의 콘텐츠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것에 집중을 한다. 이것들은 다시 유니크한 콘텐츠로 탄생하게 된다. 다시 말해, 문화공작소 세움은 한국적인 다른 질감의 음악을 지향한다. 서양악 기반의 퓨전 국악에서 국악 본질의 음악에 집중하게 된 것이다.

해외 진출에 대한 생각

문화공작소 세움은 해외 진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상하고 제작, 기획, 진행을 한다. 그것들은 공연, 현지 상황, 제작 환경에 따라 맞춤형으로 디자인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얼

마전 부평아트센터가 제작한 <할락궁이의 모험> 역시도 중동권역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기획하였고, 음악과 극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했다. 기획 파트 역시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여 진행하였던 것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재원 마련, 기획 역량, 네트워크 역량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해외진출의 핵심으로 보인다.

2017년 중동 진출 성과

이미 중동을 여러 번 다녀왔고 올해도 4번 정도 계획이 있다. 미국, 유럽, 일본,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가에서 공연을 했고, 제작해 왔다. 중동도 마찬가지로 궤를 함께하고 있다. ‘문화공작소 세움’의 콘텐츠들을 중동에서 적극적으로 펼쳐 가는 것이 중요하다. 금년도 부평구문화재단과 함께한 <할락궁이의 모험> 역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어린이 콘텐츠가 부족한 중동 지역에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었다. 중동은 문화예술 시장으로 보고 있다. 도전과 실험, 실패와 성공의 과정에서 단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얻고 있다.

부평아트센터와의 협력

문화공작소 세움이 글로벌(Global+Local)한 단체가 되기 위해서 지역만의 성격과 어디서나 접

근이 가능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유연한 프로그램으로 개발되면 해외시장에서도 어필이 가능하다. ‘문화공작소 세움’은 부평구 문화재단을 물론이며 지역의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알리는 데에 집중할 것이다.

문화공작소 세움의 음악적 컬러, 질감

우리는 100% 창작한다. 완성도와 실험적인 부분, 예술성에 대한 것의 집중은 한국대중음악상 후보, 팜스츠이스, 전주소리축제 소리프론티어 소리축제상 수상 등을 가능하게 했다. 이것은 질감, 호흡과 연결된다. 세계는 모두 그들이 가진 음악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지역과 지형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음악의 호흡, 질감 역시 독특하며 낯선 악기가 만났을 때 새로운 지경이 열린다. ‘지온 G.On’이라는 그룹도 첼로, 생황, 가야금, 기타가 만나 독특한 음악적 질감을 이뤄내고 있다. ‘지온’은 스토리를 가지고 연주자들이 가이드 역할처럼 여행을 떠난다. 이들은 10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었고, ‘세움 SE:UM’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법의 실험과 시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팀을 만들고 완성형을 만들어 가는 과정, 대중들과의 소통을 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을 ‘문화공작소 세움’은 알고 있다.

문화공작소 세움의 꿈

‘문화공작소 세움’의 무명기간은 상당히 긴 편이었다. 무명 기간 동안 활동에 갈증이 심했기 때문에 현재의 활동에 대한 소중함이 있다. 더욱이 부평아트센터 상주단체가 되면서 더욱 열심히 활동에 임하고자 한다. ‘문화공작소 세움’은 나름의 약속이 있다. 그것은 바로 초연은 ‘우리의 지역’에서라는 약속이다. <코리안 브레스>, <판타지아>, <태평성대가 여기로구나>, <원 파인 데이> 등의 공연 초연을 인천에서 올렸다. 이것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우리만의 콘텐츠를 전국과 해외로 확장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문화공작소 세움’은 콘텐츠의 다각적 유통을 통한 수익 사업,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술가’들의 안정적 예술 활동(4대 보험, 복지 증진, 정규직 고용 등), 양질의 콘텐츠 제작으로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 예술계의 선순환 구조 마련에 조금이나마 이바지 하고자 한다.



NEWS

우리가 꿈꾸는 마을

BUKIF 어린이 그리기 대회 시상

부평구문화재단은 지난 5월 5일 부키프 행사 중 미술영재발굴프로그램인 'BUKIF 어린이 그리기 대회'를 진행해 그에 대한 수상작을 8일 발표, 13일 시상했다. 이번 BUKIF 어린이 그리기 대회는 '우리가 꿈꾸는 마을'을 주제로 유치부 202명과 초등학생 223명 등 총 425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했다.

심사 결과 ▶부키프상(인천미산초 4년 김주호) ▶해누리상(청원유치원 최우현, 신촌초 4년 안효빈, 효성남초 4년 신이비) ▶달누리상(성지초병설유치원 신이라, 산곡초 2년 박현준, 대월초 4년 최윤영) ▶꽃누리상(부평중부어린이집 김세희, SCP어린이집 조예빈, 부원초 1년 곽채은, 갈월초 2년 이지민, 부원초 4년 이소현, 원동초 4년 변정

훈)을 비롯해 총 33명의 어린이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축하 인사말을 준비한 박옥진 부평구문화재단 대표는 "우리 친구들이 그려낸 '꿈꾸는 마을'은 어른들이 발견할 수 없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부평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행복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을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피력했다. 이날 수상한 어린이들에게는 상패와 상장이 주어졌고 부상으로 작품을 영구 보존할 수 있는 그림 액자와 그림 퍼즐, 부평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기획 공연과 체험 전시 티켓도 수여했다. BUKIF 어린이 그리기 대회 수상 작품들은 5월 28일까지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에 전시되었다.



NEWS

부평의 자랑

구립 단체 현황 및 수상 내역

- 1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
- 2 부평구립여성합창단
- 3 부평구립풍물단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

2010년에 창단된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국내외 여러 합창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고, 수많은 각종 행사에서 성공적인 연주를 선보였다. 또한 뮤지컬, 고전음악, 종교음악 그리고 한국전통음악과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을 연주하고 있다.

2011년, 제10회 한국어린이합창컨벤션 대상 수상을 시작으로, 2012년 한국합창단 최초로 일본 오키나와에서 초청공연을 하였고, 오키나와 지역 방송과 일간지를 통해 '한국 어린이 합창단 최초의 공연, 최고의 연주'라는 극찬을 받았다. 2014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초청을 받아 독일과 체코, 오스트리아 순회공연을 하였고, 비엔나 FEST ART VIENNA 국제합창대회에서 영예의 그랑프리 수상하였다. 2015년 대교TV 코러스코리아 합창대회 대상을 차지했다.

부평구립여성합창단

부평구립여성합창단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거주 여성들로 구성된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이다. 2000년에 창단하여 그 해 인천합창제 대상을 수상, 2007년 제4회, 2009년 제6회 전국 LG휘센합창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광주전국합창경연대회(2007)와 제주국제합창제(2009, 2010), 태백전국합창대회(2013), 전국유

관순합창대회(2015) 대상 등 전국대회에서 10여 차례 이상 수상하며 기량을 인정받았다. 아름답고 세련미 넘치는 통일된 음색과 신비로운 화성감을 자랑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아마추어합창단이라는 평을 받고 있으며 국내외 대회 및 행사는 물론 지하철, 병원, 학교 등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 활발하고 다양한 활동을 선보이며 부평구의 대표 문화사절단으로 활동 중이다.

부평구립풍물단

부평구립풍물단은 2007년 1월, 부평을 대표하는 풍물단체로 창단하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초청공연, 인천부평풍물대축제 메인 공연, 부평구 지역문화행사 등 풍물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7년 제11회 충남도지사기 전국주부풍물경연대회 참방상, 2008년 제7회 수원화성주부국악제 전국대회 타악부문 버금상, 2009년 제8회 수원화성주부국악제 전국대회 타악부문 장원(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2013년 제2회 당진시장기 전국 농악대회 장원, 2013년 제1회 전국 충청웃다리농악 경연대회 차상, 2016년 제4회 전국 충청웃다리농악 경연대회 장원, 제8회 원주 전국풍물경연대회 금상을 받으며 풍물도시 부평을 전국에 알리는 등 부평구문화사절단으로서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부평구립예술단 일반현황

2017. 8. 8. 기준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풍물단
창단	2000.2.29.	2010.6.24	2007.1.1
운영근거	부평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부평구립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성	단장 :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지휘자 : 윤재동 반주자 : 임현지 회장 : 홍성옥 단원 : 정원 50 / 현인원 29명 *수습단원 포함	단장 :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지휘자 : 조현경 반주자 : 신지현 사무장 : 신수민 단원 : 정원 50 / 현인원 39명 *수습단원 포함	단장 :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사 : 정철기 단무장 : 이명숙 (상쇠) 회장 : 박순화 단원 : 정원 45 / 현인원 35명 *수습단원 포함
연습시간	주2회 (화, 목 10:30~12:30)	주2회 (월 18:00~21:00, 토 10:00~13:00)	주2회 (월 10:00~16:00, 수 14:00~17:00)
연습장소	부평아트센터 대연습실		부평생광문화센터 공방 168



NEWS

부평구내 29곳 유허공간 개선

카페·전시관·연습실로 탈바꿈

부평구문화재단(대표이사 박옥진)은 유허공간 활성화를 위해 부평구 내 29곳의 공간을 카페·전시관·연습실 등으로 탈바꿈한 데 이어 업무공간을 추가·재배치하고 유허공간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 공공시설 유허공간 개방이란 공공시설

내 회의실, 사랑방, 문화 아지트 등의 공간을 지역 주민의 자기계발과 각종 동아리 회의, 행사의 장소로 빌려주는 공공서비스다. 부평구문화재단은 부평아트센터,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강 168, 부평구립도서관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지역 내 다양한 커뮤니티의 활성화 및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제공되는 유허공간으로는 △부평아트센터의 호박홀·세미나실1,2·스튜디오A,B,C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강 168의 다목적홀·모임방 #1,2,3,4·커뮤니티 카페·프로그램실 1,2·오픈스페이스·연습실1,2,3,4·영상편집실·문화아지트 △부평도서관의 다목적실·문화아지트(소회의실) △삼산도서관 다목적홀·문화아지트(카페테리아) △청천도서관 다목적실·문화아지트(나눔방) △부평기적의도서관 어울림·문화아지트(우렁각시방) △갈산도서관 문화아지트(세미나실) △부개어린이도서관 문화아지트(이야기 보따리방)이다. 해당 정기대관 기간에 한하여 신청 및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소모임 및 비영리 단체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공한다. 단, 종교적·정치적·영리 목적을 위한 활동을 하는 용도로는 시설 이용이 불가하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이용 주민들의 편의 증대를 위해 시설 개방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속, 정확한 승인 처리와 철저한 시설 관리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부평구문화재단 박옥진 대표는 “공공시설이 주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간 발굴과 시설 개선을 해나가겠다”며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주민분들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전했다. 대관신청은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bpcf.or.kr) 및 부평구립통합도서관 홈페이지(www.btpl.or.kr)에서 대관 신청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대관 가능일 문의 후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부평아트센터는 032-500-2055, 부평생활문화센터는 032-500-2064, 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NEWS

부평구문화재단·교보생명

‘함께 성장하는 부평’을 위한 업무 교류 협약식 개최



부평구문화재단(대표이사 박옥진)과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경인본부 제물포FP지원단(지원단장 김행석)은 2017년 6월 5일(월) 업무 교류 협약식을 갖고 문화예술활동 및 사업교류를 통한 양자간 홍보, 사회공헌활동 등 ‘함께 성장하는 부평’ 만들기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두 기관의 협약체결 이후 제휴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 교보생명 경인본부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전망이다.

김행석 교보생명 FP지원단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지역의 대표 공연시설인 부평아트센터를 누리고,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옥진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교보생명의 FP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께서 부평아트센터를 알고, 찾아오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연, 예술교육, 전시, 축제 등 부평구문화재단의 다채로운 사업들을 더 많이 알리고 함께 나누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미리 보다

화사한 봄날, 뜨거운 여름을 지나
부평구문화재단은 우리에게 멋진 가을날들을 제공한다.
매일매일이 행복하라고 음악과 그림에 사랑을 담았다.
모차르트, 베토벤의 섬세한 선율에서부터
아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화이트세일까지
부평구문화재단이 펼쳐게 될 화려한 퍼레이드를 미리 만나보자.

What's Next?

베토벤, 브람스를 만나다
2017 피아노 배들
발레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2017 송년음악회
부평 영아티스트 3기 선정작가전
화이트세일

Calendar



WHAT'S NEXT? 1



부평아트센터 클래식

베토벤, 브람스를 만나다



↑
인천시립교향악단

←
피아니스트 김다솔

인천시립교향악단과 피아니스트 김다솔의 협연 무대!

부평아트센터가 기획한 우수클래식 공연으로 차세대 클래식 유망주 김다솔을 초청하여 인천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함으로써 수준 높은 음악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프로그램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 브람스, 교향곡 4번

일시

9.16(토) 17: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R석 3만 원, S석 2만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출연진

인천시립교향악단, 김다솔

인천시립교향악단

1966년 6월 1일 첫 연주회를 시작, 수준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국내외 정상급 교향악단으로 도약한 인천시립교향악단은 매년 예술의 전당에서 주최하는 "교향악축제"에 초청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2015년 8월에 부임한 정치용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중심으로 지역을 넘어 세계를 향해 최상의 연주를 들려주는 메이저 오케스트라로 비상하고 있다.

피아니스트 김다솔

피아니스트 김다솔은 부산에서 태어나 유럽을 중심으로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11년 프랑스 에피날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하였고, 그 외에도 2008년 슈만 국제 피아노 콩쿠르, 스위스 제네바 국제 콩쿠르, 2010년 쾨엘리자베스 콩쿠르, 2011년 뮌헨 ARD 국제 음악 콩쿠르, 2012년 스위스 게자 안다 국제 피아노 콩쿠르 등 많은 콩쿠르에서 입상하였다.

WHAT'S NEXT? 2



우수클래식 프로그램

2017 피아노 배틀



전 세계에 피아노 전쟁이 시작된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폴 시비스와 안드레아스 쾨의 숨막히는 대결!

유럽, 미국, 캐나다, 아시아 전역을 뒤흔든 숨 막히는 피아노 대결! 중국, 홍콩, 대만 등 아시아권에서 매진 사례를 이뤘던 <피아노 배틀>. 흑과 백으로 구성된 피아노 배틀은 2010년 피아노의 도시 독일 베를린에서 유럽 초연을 성공리에 마치고,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 거대한 매진 행렬을 세웠다. 2013년 대만에서 6,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단숨에 매진시키며 아시아의 스타로 급부상했으며, 2015년 5월 한국 초연 매진에 이어 2016년 시즌2 LIVE ON TV를 선보여 많은 사랑을 받았다. 무거운 클래식 공연이 아닌 관객이 승자를 결정하는 방식의 공연을 선보이는 두 명의 피아니스트는 전 세계 젊은 관객들의 지지를 얻으며 전통적인 클래식 공연을 벗어나 공연의 관람층을 다양한 층으로 확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2017년에는 더욱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한국 관객을 찾아간다.

일시

10.21(토) 17: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R석 6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출연진

폴 시비스(PAUL CIBIS),
안드레아스 쾨(ANDREAS KERN)



폴시비스



안드레아스 쾨

WHAT'S NEXT? 3



토크콘서트, 컨퍼런스, 공연이
어우러진 부평의 브랜드 음악 축제

2017부평 밴드페스티벌



부평밴드페스티벌이 지역성과 대중성을 살린 부평의 대표 브랜드축제로 자리하기 위해 시민이 주체가 되어 발전시키는 희망과 역동적인 축제로 나아가고자 음악산업 육성방안과 전략을 심도있게 토론했는 뮤직컨퍼런스와 음악페스티벌 공연을 일자별로 특화하여 진행한다. 10월 13일, 14일 양일간 펼쳐질 2017부평밴드 페스티벌은 부평아트센터 구름광장에서 열리며 토크콘서트, 뮤직컨퍼런스, 쇼케이스 공연, 본공연 등으로 구성된다.

10월 13일, 밴드페스티벌 첫째날

토크 콘서트로 시작되는데 부평생활문화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지역 뮤지션 및 음악산업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음악산업 관계자가 들려주는 뮤직비즈니스 스토리와 스토리가 있는 어쿠스틱 공연을 진행한다. 이날 토크 콘서트는 배순탁(MBC 배철수 음악캠프 작가)씨가 맡았고 고건혁(봉가봉가 레코드 대표)과 뮤지션 등이 패널로 등장한다.

BP 뮤직 컨퍼런스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달누리극장에서 개최되고 국내외 음악산업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한다.

Session 1 국내 음악창작소의 발전과 협력 방안
지역음악산업 성장의 거점

Session 2 해외 음악도시 사례를 통해 본
부평음악도시의 비전
미국 클리블랜드 : 록큰롤 명예의 전당 관계자 /
스웨덴 스톡홀름 : 스톡홀름 뮤직클러스터 관계자 /
일본 시부야 : 시부야 뮤직 관계자 /
독일 칼스루에, ZKM 등
Session 3 지자체 음악도시별 정책간 특징
인천광역시 / 서울시 도봉구 / 부천시 :
음악산업육성조례 / 동두천시 : K-Music
Vally)등

컨퍼런스 이후 뮤지컬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하이
라이트 외 해외 2팀, 국내 2팀 신인 뮤지션 등의 쇼케
이스 공연이 이어진다.

10월 14일, 밴드페스티벌 둘째날

아트마켓이 부평아트센터 일대에서 벌어지며 19
60~1970년대 아트락 LP 자켓을 전시하고 핸드메이
드 소품 등 플리마켓 판매부스를 운영한다. 이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사전 공연이 BP음악산업센터
뒷편 공원에서 벌어지고 음악교육 대상교인 청천초
등학교 학생들 졸업작품과 지역 인디밴드 등의 공연
이 이어진다. 이날 오후 6시부터 본 공연이 시작되어
인천/부평 1팀, 국내 유명 3팀(봄여름가을겨울, 장미
여관, 조성모밴드, 정유천밴드), 해외 1팀 등 총 5팀
의 공연이 예정돼 있다.

WHAT'S NEXT? 4



음악동네-부평음악거리
벨트 조성을 위한

'BP 뮤직 데이' 개최

일시
8.26(토) 19:00~24:00

장소
펜트하우스 부평구 부평동 152-28
데마프라자 901호(라운지)
리버시 부평구 시장로 29번길 8
슈슈 부평구 시장로 19(라운지)
그렘어비 부평구 부평대로 40번길 4
창고 부평구 부평대로 38번길 15-1

공연 뮤지션
그렘어비 DJ Bluechip, IN THOUSAND
슈슈 JAZZYBEATS, DJ ADROIT JOE,
DJ Jay Claytor, DJ Supra
창고 덕스트릿, 이시몬
펜트하우스 DONSPIKE, The Diggers
리버시 DJ 바가지 bv13, TECHTREE

부평은 음악도시 사업 중 음악동네-부평음악거리 벨트를 조성하여 소비 중심 지향의 지역경제 패러다임을
문화 · 음악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국내 인디음악의 발원지인 홍대의 '클럽데이'와 같은 부평의 음악공간을 활
용한 정기 이벤트를 기획하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민간 상호 협력 방식의 모델을 정착시키고자
부평은 'BP 뮤직 데이'로 명명하고 업소를 선택하고 그곳에서 디제잉 공연 및 재즈 공연 릴레이를 진행한다.
'BP 뮤직 데이'는 8월 26일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부평 문화의거리 일대 음악관련 업소 및 공연 적합업소 5
곳에서 진행되는데 참여 업소는 펜트하우스, 리버시, 슈슈, 그렘어비, 창고 등이다. 'BP 뮤직 데이'에 참가하
는 업체는 포스터, 브로슈어, 현수막 등 디자인 제작물을 제공하며 팔찌입장권 등 현장 홍보물을 제공하며
행사참여 업소 인증현판을 제작, 제공한다. 금번 행사 맵을 확대하여 '부평 문화의 거리지도'를 제작할 계획
이며 2018년 <BP 뮤직 데이> 행사에는 5개 업소를 추가하여 총 1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WHAT'S NEXT? 5



일시

11.17(금)~11.18(토)
평일 20:00, 토 15: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R석 4만 원, S석 3만 원

관람연령

만 13세 이상 관람가

대한민국 뮤지컬의 희망!

빨래

대학로 창작 뮤지컬 최고의 스테디셀러 '빨래'
세대를 아우르는 힘으로 세상을 노래하다!

2005년 초연 이후, 12년간 약 4,000회의 공연 횟수와 60만 명이 넘는 관객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대표 창작 뮤지컬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는 공연이다. 빨래만 봐도 그 집 사정을 알 수 있다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 달동네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당찬 강원도 아가씨 '나영'부터 몽골청년 '솔롱고', 억척스러운 육쟁이 주인할머니, 희정 엄마등 다양한 캐릭터로 만나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WHAT'S NEXT? 6



우수 발레 프로그램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일시 12.9(토) 17:00 / 12.10(일) 15: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R석 8만 원, S석 7만 원, A석 6만 원, B석 3만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출연진 국립발레단

매년 전석 매진을 기록해온 스테디셀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화려한 안무와 놀라운 볼거리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관객들의 환상을 자극하는 스펙터클한 무대, 반짝이는 발레리나를 보기만 해도 탄성이 튀어나오게 하는 빠르고 화려한 안무까지. 국립발레단과 부평아트센터가 함께 선보이는 <호두까기 인형>은 수많은 동명의 작품들 사이에서도 매년 전석 매진을 기록해온 스테디셀러이자, 연말 공연의 상징 같은 작품이다. 동화 원작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족 혹은 어린이 공연이라는 편견이 있지만 <호두까기 인형>은 세대와 성별에 상관없이 놀라운 볼거리가 가득한 공연이다.



한국의 마돈나, 김완선!

2017 송년음악회

일시 12.28(목) 20: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R석 8만 원, S석 7만 원, A석 6만 원, B석 4만 원

관람연령 만 13세 이상 관람가 출연진 김완선

시대를 앞서나간 파격적인 퍼포먼스!
최고의 댄싱 퀸, 한국의 마돈나 김완선.

1986년 혜성처럼 등장한 17세 소녀는 그 해 KBS 가요대상 여자 신인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시대를 앞서나간 파격적인 퍼포먼스와 트렌디한 패션으로 대중을 열광시킨 '한국의 마돈나' 김완선. 데뷔곡 <오늘 밤>을 시작으로 <나홀로 틀 앞에서>, <나홀로 춤을 추긴 너무 외로워>, <리듬 속의 그 춤을> 등 수많은 곡들을 히트시켰다. 특히 <빠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가장 무도화>, <나만의 것>이 수록된 5집 앨범은 100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한국 여가수 최초의 밀리 언셀러가 되는 영광을 안았다. 데뷔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김완선은 2016년에 <Mir>, <Use ME> 등 5개의 신곡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가요 시장에 변치 않는 영향력을 과시했다. 부평아트센터에서 만나는 김완선은 끊임없이 성장해 온 뮤지션 김완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선보일 예정이다.

WHAT'S NEXT? 7



Perennial Inspiration

부평 영아티스트 3기 선정작가전

예술을 통해 작가 자신과 시각언어로 표출되는 생각을 창작물로 생산해내는 젊고 유능한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신념과 용기를 선사하는 부평구문화재단의 공모전 <부평영아티스트>.

<부평영아티스트> 공모전에서 발탁된 3기 작가들의 선정작가전을 통해 그들의 작품세계에 공감하고 그들의 성장을 함께 격려하여 현대미술의 아트신을 이끌어갈 '라이징 아트스타'의 등장을 기대·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전시 기간 중 'POP Prize 관람객이 뽑은 작가' 투표를 통해 관람객들은 최종 심사위원이 되어 부평영아티스트를 향한 애정과 참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일시
10.12(목)~10.29(일) 10:00~18:00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WHAT'S NEXT? 8



4th 부평옥션

화이트세일

프리뷰
11.3(금)~11.8(수) 10:00~18:00

경매 일시
11.9(목) 19:00

경매 후 전시
11.10(금)~11.19(일) 10:00~18:00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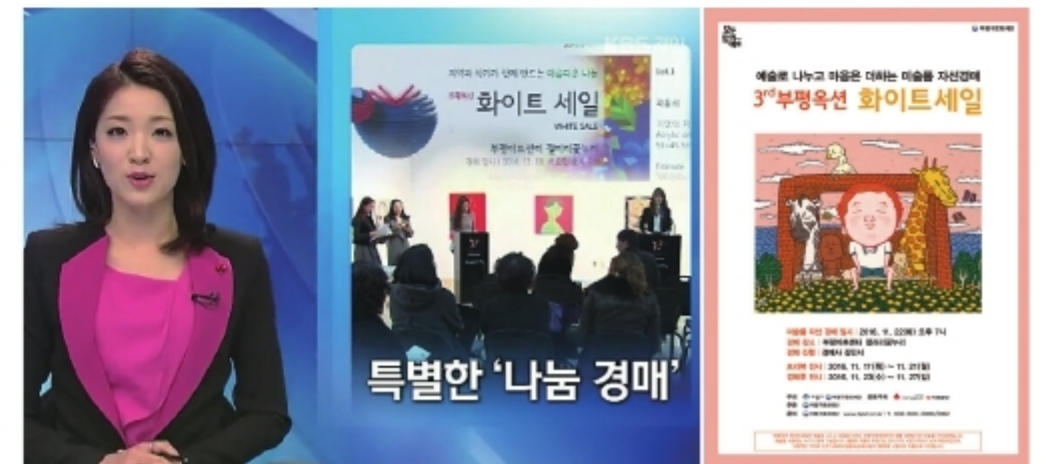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술로 모두 함께 나누는 진정한 시간

미술품 자선경매 네 번째 부평옥션 '화이트세일'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이라는 지역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예술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나눔문화 확산이라는 특별한 사회적 가치를 이루어낼 미술품 자선경매 '화이트세일'을 진행한다. 지역 문화예술기관으로써는 이례적으로 미술품자선경매를 진행하여 미술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작품 소장가 기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예술을 통한 나눔 확산'이라는 자선경매 행사의 취지를 살려내고,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며 그들의 삶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프리뷰 전시를 통해 경매에 참여하기 전 응찰자와 관람객들은 경매에 출품된 작품들의 컨디션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경매 당일에는 누구나 참여하여 생생한 경매 현장의 열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CALENDAR



* 프로그램과 출연진,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연



전시



예술교육



문화사랑방 공연



문화사랑방 예술교육



지역문화



가족 음악극

모차르트의 마법 바이올린



일시	8.19(토) 14:00
장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1만 원
관람연령	24개월 이상
문의	032-500-2052

감성과 창의력이 쑥쑥,
온 가족이 즐기는 모차르트 음악회!
아이들에게 생소한 클래식 음악을 동화 같은 이야기와 함께 풀어나가는 가족 음악극, 피아노, 플루트, 첼로 타악기의 조화롭고 아름다운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공연이다.
<모차르트의 마법 바이올린>을 보는 순간부터 모차르트 음악은 두뇌개발용 음악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들이 소통하고, 음악과 사람이 소통하는 마법의 세계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스페인일레니엄합창단 초청 내한공연

평화의 콘서트



일시	8.23(수) 19:30
장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8세 이상
문의	032-500-2053

“아리랑과 한국노래,
스페인 교과서에 실을 겁니다.”
투우와 플라멩코, 거리의 악사들에게서도 멋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악의 본고장 유럽 스페인에서 한국의 노래를 전파하고 물들이는 지휘자 임재식!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복을 입고 공연하는 프로 합창단을 초청하여 잊혀가는 우리 가족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중흥을 도모하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어린이들이 만드는

어린이 연극학교



일시	8.12(토)~12.16(토) 매주 토 / 14:00~16:00 (총 20회)
장소	부평아트센터 대연습실
대상	8~13세 어린이 40명
참가비	20만 원

어린이들이 공연 제작하는 과정에 참여하며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즐거운 연극학교. 마지막 회차 시 전문 공연장에서의 공연으로 폭 넓은 예술을 경험한다.



와이즈발레단 김길용 단장이

들려주는 발레 공연

Hello, 발레!



일시	8.11(금)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료	전석 5천 원
관람연령	만 3세 이상 관람가

대중의 눈과 귀에 친숙한 영화와 가요가 발레를 만났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관객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발레 갈라 콘서트’. 클래식 발레 ‘백조의 호수’부터 가요 ‘담배가게 아가씨’ 등의 음악은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는 선곡이 될 것이다. 작품의 해설과 발레 역사 이야기, 발레 마임 배우기 등의 해설이 있는 시간을 통해 발레의 이해를 돕고 발레의 언어로 관객과 소통하는 즐거운 공연이 될 것이다.



라틴팩토리와 함께하는

정열의 Summer Night!

He Latin Factory Concert



일시	8.18(금)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료	전석 5천 원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라틴팩토리가 추구하는 음악은 남미 음악, 그 중에서도 아프로큐반(Afro-Cuban). 이는 ‘쿠바의 정취가 고스란히 담겨있다’는 의미이다. 쿠바노(Cubano) 그들이 가진 역사적 고난, 슬픔 등을 음악으로 승화시켜 흥겨움과 해학으로 표현해 냈다면, 라틴팩토리는 그러한 음악을 한국의 정서에 맞는 라틴 사운드로 적절히 재해석한 공연이다.



권윤덕 작가와 함께하는

꽃 할머니



일시	8.29(화)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료	전석 5천 원
관람연령	만 5세 이상 관람가

우리의 어린이들이 전쟁과
폭력 없는 세상에서 살게되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공연
<꽃 할머니>는 단순히 위안부의 아픔을 이야기 하고자 함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그 전쟁 속에서 국가가 저지르고 있는 제도적 폭력과 피해자들의 슬픈 이야기를 담은 공연이다.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전쟁의 아픔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역설적으로 평화를 이야기하는 뜻 깊은 무대가 될 것이다.



예술로 놀고, 예술로 만나고!

여름방학 어린이 연극놀이교실



일시	8.7(월)~8.11(금) 10:30~12:00(3,4학년) 13:30~15:00(1,2학년) ※ 11일(금)에만 1,2학년반 수업이 12:30~14:00에 진행됩니다.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갈산2동주민센터 3층)
대상	초등 1~2학년, 3~4학년 각 반 13명
참가비	5만 원(5회, 90분 수업)
강사진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 소속 2인 강사
신청·접수	7.25(화) 오전 10시부터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선착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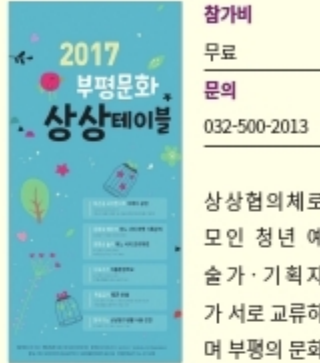
초등 재학생의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소재로 한 놀이와 연극적 활동으로 구성된 체험형 프로그램. 이번 여름방학에는 ‘세계 여러 나라’와 ‘문화 다양성’을 주제로 활동할 예정이다.



부평구문화재단과 예술가·기획자가

협력하여 활동무대를 만드는 열린 장

2017 부평문화상상테이블



공간, 사람, 자원을 엮으면서 직접 문화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수평적으로 연대하며 자율적으로 다른 주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더불어 부평 문화예술 현장을 가꿔나가는 정책 사업이다.

참가비

무료

문의

032-500-2013

상상협의체로

모인 청년 예술가·기획자

가 서로 교류하며

부평의 문화



CALENDAR



* 프로그램과 출연진,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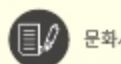
전시



예술교육



문화사랑방 공연



문화사랑방 예술교육



지역문화



판타지 어드벤처 가족극

토끼전 Tale Of Rabbit

일시	9.2(토) 11:00, 14:00
장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2만 원
관람연령	6세 이상 관람가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판타지 어드벤처 가족극!

<토끼전>은 서민 의식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풍자와 익살스러운 해학, 그리고 신명 넘치는 음악으로 관객을 찾아가 간다. 대한민국 대표 연출가 겸 작가 고선웅이 각색하고, 연출가 서정완이 연출하여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가족극으로 재탄생한다. 고전의 교훈을 살린 이야기에 트렌디한 각색과 연출을 가미해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남녀노소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부평아트센터 클래식

베토벤, 브람스를 만나다



일시	9.16(토) 17: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R석 3만 원, S석 2만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출연진	인천시립교향악단, 김다솔

인천시립교향악단과 피아니스트 김다솔의 협연 무대! 부평아트센터가 기획한 우수클래식 공

연으로 차세대 클래식 유망주 김다솔을 초청하여 인천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함으로써 수준 높은 음악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매월 셋째주 토요일, 가족과 함께 느끼는 클래식의 가치!

우리가족 토요일N클래식 시리즈



일시	9.16(토) 17:00 클래식 시대 바로크 I 11.18(토) 17:00 클래식 시대 바로크 II 12.16(토) 17:00 클래식으로 만나는 크리스마스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료	전석 5천 원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관람객이 뽑은 작가 다니엘경 어바웃 유

부평영아티스트 2기 POP Prize



일시	9.21(목)~10.8(일) 10:00~18:00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2016년 부평구문화재단의 두 번째 공모전을 통해 발탁된 5명의 전도유망한

신진작가들은 부평영아티스트 2기 선정작가전을 통해 관객과 만나고, 관객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된 다니엘경의 개인전 <어바웃 유>. 부평영아티스트 2기 선정작가전에서 만나보았던 그녀의 작품을 더욱 심도 깊고 주의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호랑이 뱃속에서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이야기! 다같이 구경가유~!

호랑이 뱃속 구경가유!



일시	9.13(수)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료	전석 5천 원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신나는 음악과 함께하는 유쾌한 코믹 인형극!

빈대떡 신사

일시	9.27(수)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료	전석 5천 원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빈대떡 신사>는 슬랩스틱 코믹 인형극으로 유럽 중세시대의 익살극 중 하나인 '빠떡과 파이'를 재창작한 작품으로 '배고픔'이라는 사건을 토대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신뢰와 약속, 세상을 살며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인형들의 유쾌한 풍자와 조언으로 남녀노소 모든 관객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주 목요일 11시에 만나는 부평아트센터의 대표 콘서트 브런치 콘서트 스페셜 브런치

음악으로 우리 곁에 영원히 남아있는 그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만나는 시간!

일시	9.28(목) 오전 11시 - 스페셜 브런치, 소나기		
	10.26(목) 오전 11시 - 스페셜 브런치, 두 번째 달		
	11.30(목) 오전 11시 - 스페셜 브런치, 한빛 예술단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1만 5천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문의	032-500-2053

· 공연 종료 후 커피와 머핀을 제공합니다.
· 프로그램과 출연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페셜 브런치, 소나기 9.28(목) 오전 11시



샌드애니메이션과 함께하는 문학콘서트 세대를 초월하여 대한민국 누구나 알고 있는 황순원 원작 단편소설 <소나기>를 소년, 소녀 배우의 대화로 들을 수 있다. 다양한 음악 연주와 라이브로 진행되는 음향효과, 샌드애니메이션이 어우러지는 공연을 선보인다. 자연의 소리가 무대에서 라이브로 해금과 양금 등 국악기와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기타, 하모니카 등 동서양을 초월한 소리의 세계로 구현된다. 특히,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 등으로 아름다움이 빚어낸 감각의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스페셜 브런치, 두 번째 달 10.26(목) 오전 11시



월드 뮤직 밴드, 두 번째 달 콘서트 팝과 가요, 예술성과 상업성, 메이저와 마이너라는 일도단단의 경계로 음악을 규정짓는 것이 마치 절대적 진리인양 모든 이들의 뇌리에서 굳어져가는 지금, 밴드 '두 번째 달'은 새로운 감성, 새로운 음악적 체험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보고자 하여 결성되었다. 국내 최초로 에스닉 퓨전 음악을 선보인 월드뮤직 밴드 '두 번째 달'의 상상력을 엿볼 수 있다.

스페셜 브런치, 한빛 예술단 11.30(목) 오전 11시



한빛 예술단의 명작영화 OST 콘서트 장애의 아픔을 이겨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방황하고 실의에 빠진 분들을 위한 배려와 나눔에 앞장서고 있으며, 희망음악회를 개최하며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에 힘쓰고 있다. 이번 공연은 명작 영화 OST를 주제로 관객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시간을 가져본다.



음악감수성 교육

오디



일시	9.14(목)~11.23(목) 매주 목요일 10:45~11: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갈산2동주민센터 3층)
대상	4~5세 유아+엄마, 10쌍
참가비	15만 원 (10회, 45분 수업)
신청·접수	9.5(화) 오전 10시부터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선착순)

멜로디, 리듬감을 비롯하여 다양하고 민감한 유아의 음악적 능력을 계발하고, 능동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어 마음으로 이해하고 상상하게 하는 오디에 이선 음악 감수성 교육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춤추는 사랑방 “렛츠 탭”



일시	9.12(화)~12.5(화) 매주 화요일 16:30~17:30(초등) 19:00~20:30(성인)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갈산2동주민센터 3층)
대상	초등학교 1~6학년, 성인 각 반 12명
참가비	12만 원 (12회, 초등 60분 / 성인 90분 수업) ※탭슈즈 구입비 별도
신청·접수	9.1(금) 오전 10시부터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선착순)

낯설고 어려운 것 같은 춤에 대한 거리감을 해소하고, 누구나 쉽게 즐기고 움직일 수 있도록 탭댄스의 기초부터 안무까지 지속적으로 익혀 무대 위 공연 발표로 마무리하는 프로그램.



상상협의회 멤버들과 청년들이 함께 떠나는 스터디 투어

찾아가는 상상탐구생활 서울·인천

서울 탐구	
일시	9.16(토) 10:00 / 카페스튜디오 배우다 김세현 대표
인천 탐구	
일시	11.11(토) 10:00 / 협동조합 꿈꾸는 문화놀이터 정운호 대표
대상	상상협의회, 부평·인천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비)기획자, 예술가 12명

부평문화상상데이북의 주축이 된 상상협의회 멤버들과 청년들이 모여 서울과 인천으로 스터디 투어를 떠난다. 문화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기획자들을 만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며 예술가와 기획자들이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 프로그램과 출연진,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연



전시



예술교육



문화사랑방 공연



문화사랑방 예술교육



지역문화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음악대축제 2017부평밴드페스티벌



일시	10.13(금)~10.14(토)
장소	부평아트센터 일원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1일차	부평뮤직컨퍼런스 (뮤직컨퍼런스, 쇼케이스, 토크콘서트)
2일차	2017부평밴드페스티벌(콘서트)
문의	032-500-2043~6

음악도시 부평의 대표적 대중음악 축제인 ‘부평밴드페스티벌’이 더욱 화려해집니다.

과거 60~70년대 부평 Ascom 미군부대 일대의 클럽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중심지를 이루었던 K-Pop의 히스토리를 계승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문화콘텐츠로 더욱 특화하여 발전시키기 위한 축제이다. 특히, 올해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첫째 날에는 토크콘서트, 뮤직컨퍼런스, 쇼케이스 등 음악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둘째 날에는 지역의 전 연령대가 열광할 수 있는 국내·외 뮤지션으로 라인업을 구성하여 콘서트 형식으로 열띤 본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내 유수 축제에서 호평 받고 있는 푸드트럭과 부대 체험행사 존을 운영함으로써 관람객 친화적인 대중적 음악축제로 다가가설 예정이다.



우수클래식 프로그램 2017 피아노 배틀



일시	10.21(토) 17: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R석 6만 원, S석 5만 원, A석 4만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출연진	폴 시비스(PAUL CIBIS), 안드레아스 쾰(ANDREAS KERN)

전 세계에 피아노 전쟁이 시작된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폴 시비스와 안드레아스 쾰의 숨막히는 대결! 유럽, 미국, 캐나다, 아시아 전역을 뒤흔든 숨막히는 피아노 대결! 중국, 홍콩, 대만 등 아시아권에서 매진 사례를 이뤄낸 <피아노 배틀>. 흑과 백으로 구성된 피아노 배틀은 2010년 피아노의 도시 독일 베를린에서 유럽 초연을 성공리에 마치고,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 거대한 매진 행렬을 세웠다. 2013년 대만에서 6,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단숨에 매진시키며 아시아의 스타로 급부상 했으며, 2015년 5월 한국 초연 매진에 이어 2016년 시즌2 LIVE ON TV를 선보여 많은 사랑을 받았다. 무거운 클래식 공연이 아닌 관객이 승자를 결정하는 방식의 공연을 선보이는 두 명의 피아니스트는 전 세계 젊은 관객들의 지지를 얻으며 전통적인 클래식 공연을 벗어나 공연의 관람층을 다양한 층으로 확장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2017년에는 더욱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모습으로 한국 관객을 찾아간다.



제2회 부평구립풍물단 정기연주회 에헤라디아



일시	2017.10.27(금) 19:3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무료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출연진	부평구립풍물단

흥겹고 신명나는 우리 멋, 우리 소리 부평구립풍물단이 선사하는 제2회 정기연주회 - 에헤라디아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은 부평구립풍물단은 수도권 지역의 초청 공연, 인천부평풍물대축제 메인 공연, 부평구 지역문화행사 등 풍물도시 부평의 문화사절단으로서 풍물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이미 2017 제19회 전국농악명인경연대회 일반부 대상, 2017 제3회 계양산전국 국악 경연대회 풍물부문 우수상 등 두 차례나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부평구립풍물단은 이번 제2회 정기연주회에서 앓은반, 삼도농악가락, 살풀이, 진쇠춤, 경기만요, 설장고, 타악 모듬북, 판굿 등 흥겹고 신명나는 풍물의 진수를 펼칠 예정이어서 부평구립풍물단만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Perennial Inspiration 부평영아티스트 3기 선정작가전



일시	10.12(목)~10.29(일) 10:00~18:00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관람료	무료
관람 연령	전체관람가

<부평영아티스트> 공모전을 통해 발탁된 3기 작가들의 선정작가전에서는 그들의 작품세계에 공감하고 그들의 성장을 함께 격려하여 현대미술의 아티신을 이끌어갈 ‘라이징 아티스타’의 등장을 기대·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전시 기간 중 ‘POP Prize’ 관람객이 뽑은 작가’ 투표를 통해 관람객들은 최종 심사위원이 되는 기회로 부평영아티스트를 향한 애정과 참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청년 문화예술기획자 양성 과정

청년에담 : 청년, 예술을 담다

일시	8. 21(월)~9. 1(금) 14:00~17:00 (총 10회)
장소	부평아트센터 호박홀
대상	문화예술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대학생 및 청년
참가비	10만 원

문화예술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예비 기획자를 대상으로 현업에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창출하고 동기부여 할 수 있는 역량 개발 아카데미.



THE+미소와 함께 흥겨운 잔치판을 벌려봅시다! THE+미소와 함께하는 희희락락 잔치판!



일시	10.20(금)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료	전석 5천 원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창작국악팀 THE+미소
아름다운 미, 소통할 소,
the(더)하고 +(더하다)

Program	
① 가악합주곡 ‘침밀밀,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편곡 - 이은희(침밀밀편곡), THE+미소	
② 25현 가야금병창 창작곡 ‘신 뱃놀이’ (초연) 작곡 - 박선영	
③ 25현 가야금병창 창작곡 ‘창부타령’ 작곡 - 김민지	
④ 단막음악극 ‘홍보네 박터졌네!’ (초연) 연출 - 김솔지 대본/구성 - THE+미소	
⑤ 성악 창작곡 ‘동그랑땡’ 작사 - 이은희 작곡 - 강한별, 편곡 - 김민지	
⑥ 25현 가야금병창 창작곡 ‘심청은 억지춘향’ 작사 - 이은희, 차보영, 지유정 작곡 - 김민지	



미술과 클래식 음악이 결합 된 하이브리드 예술 페스티벌 선율 흐르는 그림

일시	10.27(금)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료	전석 5천 원
관람연령	만 8세 이상 관람가
출연진	로멘티카아르떼

Program
르네상스
(연주없이 회화 작품만 소개 :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

바로크시대 16c후반~18c중반
바흐 - 무반주첼로 모음곡 1번 푸렐류드
헨델 - 파사칼리아 / 울게하소서
(렘브란트와 루벤스 작품 소개)

고전주의 18c후반~19c초반
모차르트 - 아이네크라이네 나트뮤직
베토벤 - 비창
(앵그르와 루이 다비드 작품 소개)

낭만파시대 19c말
쇼팽 - 녹턴
브람스 - 헝가리 무곡
(반 고흐 작품 소개)

현대음악 20c
드뷔시 - 달빛
쇼스타코비치 - 왈츠 2번
(라울튀피와 피카소 작품 소개)



부평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부평구문화재단 정책과제 논의 2017 부평구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정책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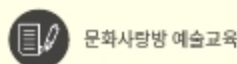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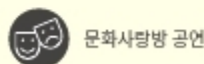


일시	10.19(목) 14:00
장소	부평아트센터 세미나실
문의	032-500-2013

부평구문화재단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부평의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해 면밀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재단의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지역 주민, 문화예술인, 문화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 프로그램과 출연진,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8회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꿈꾸는 행복한 세상!



일시	2017. 11. 4(토) 17: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6세 이상 관람가
출연진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이번 제8회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는 유명하고 친숙한 동요와 디즈니 영화 주제곡으로 구성되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특별한 연주회를 선사한다. 2017년 11월 4일, 아이들이 꿈꾸는 행복한 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온 가족이 함께 행복을 찾는 열쇠를 찾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부평울스타빅밴드

스윙플러스콘서트



일시	11.11(토) 17: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1만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출연진	부평울스타빅밴드, 제니유(전자바이올린) 외

부평울스타빅밴드와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펼치는 환상의 콜라보!
우리나라 최고의 스윙재즈를 연주하는 20인조 부평울스타빅밴드는 그동안 연주 해왔던 스윙음악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주 레퍼토리인 스윙재즈 외에 전자바이올린이나 힙합 등 전혀 다른 장르와 멋지고 실험적인 콜라보를 들려준다.



대한민국 뮤지컬의 희망!

빨래



일시	11.17(금)~11.18(토) 평일 20:00, 토 15: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R석 4만 원, S석 3만 원
관람연령	만13세 이상 관람가

대학로 창작 뮤지컬 최고의 스테디셀러 '빨래' 세대를 아우르는 힘으로 세상을 노래하다!
2005년 초연 이후, 12년간 약 4,000회의 공연 횟수와 60만 명이 넘는 관객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대표 창작 뮤지컬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는 공연이다. 빨래만 봐도 그 집 사정을 알 수 있다는 하늬과 가장 가까운 곳 달동네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당찬 강원도 아가씨 '나영'부터 똥굴청년 '솔롱고', 억척스러운 욕쟁이 주인할머니, 회장 엄마등 다양한 캐릭터로 만나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4th 부평옥션

화이트세일



프리뷰	11.3(목)~11.8(수) 10:00~18:00
경매 일시	11.9(목) 19:00
경매 후 전시	11. 10(금)~11. 27(일) 10:00~18:00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이라는 지역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예술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나눔문화 확산이라는 특별한 사회적 가치를 이루어낼 미술품 자선경매 ‘화이트세일’을 진행한다. 지역 문화예술기관으로써는 이례적으로 미술품자선경매를 진행하여 미술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작품 소장과 기부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예술을 통한 나눔 확산’이라는 자선경매 행사의 취지를 살려내고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독려하고 그들의 삶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 또한 유도하고 있다.



부평영크리에이티브 당선 전시

안의 눈, 제 3의 시선



일시	11.23(목)~12.10(일) 10:00~18:00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기획자들의 폭넓은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그들의 독창적인 전시를 통해 대중들에게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신진 기획자 공모프로그램인 부평영 크리에이티브. 안의 눈을 통해 바라본 시간과 공간, 그리고 제 3의 시선으로 해석한 시공을 한 공간 안에 펼쳐 내어 현대미술 비평에 대한 담론을 통해 지역예술에 대한 지경을 넓히고, 현대미술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기획자들의 다양한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기획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



물체놀이극

평강공주와 온달바보



일시	11.15(수)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료	전석 5천 원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물건들이 펼치는 놀라운 연극, 라이브 음악이 있는 이야기꾼의 물체 놀이극!
일상에서 흔하게 보는 주전자, 손가락 등의 주방용품과 붓, 물감등 등 화구, 공구 등 생활용품에 생명을 불어 넣어 역사적 인물로 변화시켜 관객의 상상력과 창의성에 영감을 준다. 굿거리 장단 등 한국 전통 리듬과 선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건반, 우크렐레, 카혼 등으로 표현한 라이브 음악은 연극에 생생함을 불어넣는다. 특히, 사물 짝쇠 가락을 변형한 말달리는 테마의 음악에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퓨전국악 Ensemble秀 연주회

조선, 르네상스를 꽃 피우다



일시	11.24(금)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료	전석 5천 원
관람연령	만 6세 이상 관람가

Program

1. 조선, 르네상스
 - 지영희류 해금산조
 - 타령 - 작곡: 함현상
 - 불노하 - 작곡: 김대성
 - Sonata for cello solo op.8
작곡: Zoltan kodaly
 - Reminiscence - 작곡: 남구민
 - Croatian Rhapsody -
작곡: Maksim Mrvica

2. 월계 스며들다

- Dance of the moonlight -
작곡: 안현정 / 편곡: Ensemble秀(수)
- Czardas - 작곡: V.Monti/ 편곡: Ensemble秀(수)
- Take five - 작곡: Paul / 편곡: Ensemble秀(수)
- 오봉산타령 - 작곡: 함현상 / 편곡: Ensemble秀(수)

3. 꽃을 피우다

- 편지 - 작곡: 송준섭
- Habanera de Carmen - 작곡: Georges Bizet / 편곡: Ensemble秀(수)
- 아랑의 꿈 - 작곡: 김계옥 / 편곡: 박위철
- 축제 - 작곡: 이준호 / 편곡: Ensemble秀(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독립잡지 퇴근 01호 출간회



일시	11.19(일) 18:00
장소	라이브클럽 ROCK CAMP (부평구 주부토로145번길 47)
대상	퇴근 01호 모임 참가자 및 독립잡지에 관심 있는 20대 이상

일상의 평범한 이야기를 기록하여 가치 있는 글로 모아낸 독립잡지 퇴근 01호 출간회를 연다. 3개월간 진행된 이야기 모임에 참여하면서 돈독한 관계를 다진 평범한 사람들이 퇴근 01호의 이야기 창작자로 거듭나는 자리이다.



CALENDAR



* 프로그램과 출연진,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연



전시



예술교육



문화사랑방 공연



문화사랑방 예술교육



지역문화



모두 함께 즐기는 무료음악회

2017 로비음악회 12시 15분

일시	12.9(토) 12:15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로비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토요일 오후 12시 15분, 해누리극장 로비에서 즐기는 작은 축제!



우수 발레 프로그램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일시	12.9(토) 17:00 / 12.10(일) 15: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R석 8만 원, S석 7만 원 A석 6만 원, B석 3만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출연진	국립발레단

국립발레단과 부평아트센터가 함께 선보이는 <호두까기 인형>은 수많은 동명의 작품들 사이에서도 매년 전석 매진을 기록해온 스테디셀러이자 2000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관객의 겨울을 책임져온 연말 공연의 상징 같은 작품이다.



한국의 마돈나, 김완선!

2017 송년음악회



일시	12.28(목) 20: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R석 8만 원, S석 7만 원, A석 6만 원, B석 4만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출연진	김완선

부평아트센터에서 “The best”로 만나는 김완선은 끊임없이 성장해 온 뮤지션 김완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선보일 예정이다. ‘댄싱 퀸’다운 강렬한 댄스뿐만 아니라 그녀의 넓은 스펙트럼을 확인할 연말 최고의 공연이 될 것이다.



가족 전래동화극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일시	12.6(수)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료	전석 5천 원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 **효와 선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어느 추운 겨울 밤 시골마을에 사는 할머니가 차가운 방안에서 이불을 덮고 계시는데 손주가 급히 달려 들어와 할머니 다리 밑으로 두손을 파묻고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때를 쓰면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호랑이와 꽃감”으로 그 장소는 바로 이야기를 들려 주시는 할머니의 방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인 “저승곳간”은 못된 사또가 저승에 가서 다시 뉘우치고 착한 사또가 된다는 이야기를, 또 “방부석 재판”에서는 현명한 사또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한국음악으로 만들어진

세계적인 콘텐츠

동박박사의 <시간여행>

일시	12.15(금)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료	전석 5천 원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세계에서 단 한 대밖에 없는 개량피리를 직접 제작하여 연주하는 피리연주자 '동방박사'의 리더 김예찬! 사물놀이 악기들로 드럼set를 구성하여 연주하는 타악기 연주자와 기타연주자, 콘트라베이스 연주자들과 조화를 이루며, 한국음악을 바탕으로 월드뮤직을 지향하는 이들의 다양한 음악세계가 청중들을 매료시킬 완벽한 공연이다.

부평아트센터 2017 하반기 시즌패키지 티켓

테마별 선택 패키지

브런치 패키지

두 작품 모두 선택 시 20% 할인



브런치 콘서트, 두 번째 달 10.26(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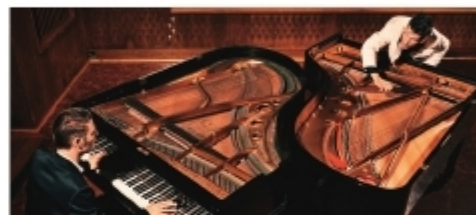
브런치 콘서트, 한빛 예술단 11.30(목)

해피 클래식

두 작품 모두 선택 시 30% 할인



베토벤, 브람스를 만나다 9.16(토)



우수클래식 피아노 배틀 10.21(토)

기대만발 패키지

두 작품 모두 선택 시 30% 할인



모차르트의 마법바이올린 8.19(토)



뮤지컬 발레 11.17(금)~11.18(토)

울로 패키지

두 작품 모두 선택 시 30% 할인



호두까기인형 12.9(토)~12.10(일)



송년음악회 12.21(목)

※ 하반기 시즌 패키지 구매하신 모든 관객에게 부평문화재단 정기간행물 '보다'를 드립니다.
· 엔티켓 enticket 전화예매 1588-2341(온라인 예매 불가) 예매수수료 예매건당 1,000원 고객부담
· 패키지 상품 구매 후 취소 및 환불 가능(부분 취소 불가)
· 1개 이상 공연관람 이후 취소 및 환불 진행시 차액(정가기준) 지불
· 공연 일정 변경 : 해당 공연 1일전 오후 5시(1일전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전날 평일 오후 5시)
· 공연일정 변경 시, 해당 공연의 좌석이 매진일 경우 변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시야장애석은 패키지로 판매되지 않습니다.

예매안내



온라인예매

- 부평아트센터 홈페이지 bpcf.or.kr
-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기획공연 10% 할인
- 기획 공연일(프로그램 당일) 기준 전일 오후 5시까지 예매 가능
- 대관 공연의 경우는 대관단체 쪽에 문의



전화예매

- 부평아트센터 대표번호 032-500-2000
- 운영시간 내 예매 가능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방문예매

-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1층 안내데스크
- 운영시간 내 예매 가능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현장예매

- 공연시작 1시간 전부터 매표소에서 구입가능 (일부공연 제외)
- 당일공연 티켓 예매
- 인터넷, 전화 예매 티켓 발권



부평나눔카드

- 부평나눔카드로 결제 시 기획공연 최대 30% 할인



튼튼한 후원부평구문화재단후원회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는 부평구문화재단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부평구민들이 문화예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하고 다양한 교류와 소통으로 아름다운 문화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후원회 신청방법

- ① 방문신청 부평구문화재단 마케팅팀
- ② 우편신청 인천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부평아트센터 내 부평구문화재단 마케팅팀
- ③ 신청문의 032-500-2081

기본예우 : 홈페이지 후원자-기업명 표기 / 홈페이지 후원회 페이지 운영 (소식 업데이트) / 해누리 공연장 로비 벽면 회원 명판 부착 / 후원회 카드 발행

후원회원 등급 및 예우

기업 / 개인	해누리 (5천만 원)	기업 브랜드 타이틀 제공 (기획공연에 한해 연간 2회)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40장 공연 및 축제 프로그램 기업명 표기 후원사 홍보 부스 설치 (기획공연시 연간 2회) 세미나실, 커뮤니티 홀 무상 대관 (연간 4회)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50%)	평생회원
	달누리 (2천만 원)	기업 브랜드 타이틀 제공 (기획공연에 한해 연간 1회)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30장 공연 및 축제 프로그램 기업명 표기 후원사 홍보 부스 설치 (기획공연시 연간 1회) 세미나실, 커뮤니티 홀 무상 대관 (연간 3회)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40%)	
	꽃누리 (1천만 원)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20장 공연 및 축제 프로그램 기업명 표기 세미나실, 커뮤니티 홀 무상 대관 (연간 2회)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30%)	
	별누리 (5백만 원)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10장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20%)	
개인	구름 (3백만 원)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10장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30%)	5년
	외 (1백만 원)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6장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20%)	5년
	가람 (5십만 원)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4장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20%)	3년

기본예우 : 홈페이지 후원자-기업명 표기, 홈페이지 후원회 페이지 운영 (소식 업데이트), 해누리공연장 로비 벽면 회원 명판 부착, 후원회 카드 발행

후원해주시는 분들

꽃누리	별누리	구름	외	가람
최도현 대원인물(주) 대표이사	홍종국 삼선월드컨벤션센터 대표	박인덕 (주)상보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맹익재 클라이젠(주) 대표이사	신희석 아침을여는사람들 대표
노태손 퓌크빅문고 대표	박홍식 부평역사(주) 대표이사		허난영 (재)세종문화회관 팀장	윤대기 법무법인 로엘 변호사
성낙경 (주)한빛기술 대표이사	함국중 부원산업(주) 대표	박석범 인그리디언코리아	이해민	최장석 온성산업(주) 대표
서태호 (주)난다 고문	최주승 (주)대경아이스 대표	유현회사 이사	박옥진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권복환 1급부평자동차공업사 대표
김영무 (주)하온아텍 대표이사	배정태 더페이스샵 대표	배수진 (주)승우연지니어링 대표이사	강경애 리디언 우쿨렐레	안중명 정수미크론 대표
이희재 (주)우성아이비 대표이사	김용택 온세계교회 GVC 목사		오케스트라 단장	신종백 삼정1동 주민자치위원장
정규영 의료법인 한길안과 이사장	최백경 (주)경인 대표이사	김효배 북구환경(주)대표이사	박경은 세무그룹토은 대표세무사	심수연 부개3동 주민자치위원장
이정환 (주)비에이지 대표이사	이승희 (주)두전금형 대표이사	전봉은 부평환경(주) 대표이사		조장애
이광복 동서식품(주) 대표이사	기중현 (주)연우 대표이사	한재현 동일환경(주) 대표이사		박영옥 삼우환경 대표
조덕령 (주)덕성그린텍 대표이사	심수일 삼정가스공업(주) 대표이사	안용현 한국그린환경(주) 대표이사		오중석 한국통운(주) 대표이사
		민병현 (주)명화환경 대표이사		한유순 광원아트홀 관장
		정해자 (주)삼원환경 대표이사		정지연 광원건설(주) 회장
		권영조 (주)영메디칼바이오 대표이사		이계찬 지인조경(주) 대표이사
				김유완 관세법인 샤인 관세사
				황영희 가현텍스 세무사
				윤일영 문화환경국장
				이종권 호텔라움 대표
				고동희



시민회원(CMS)약정 안내

약정금액

- ① 연간 약정금액
- ② 연간 3만 원
- ③ 문화나비 가맹점 연간 36만 원
- ④ 문화나비 가맹점 연간, 월 단위 선택납부 가능
- ⑤ 기타 희망금액 약정가능

기부자 예우

- ① 연례보고서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부금 사용내역 공개
- ② 정기간행물과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공개 (비공개로 신청 가능)
- ③ 부평아트센터 기획공연 20~30% 할인
- ④ 문화나비(가맹점) 현판 부착
- ⑤ 회원 음악회(후원의밤) 1회 초청

지정내용

기부금 사용을 부평구문화재단(후원회)에 일임하여, 별도 조건없이 기부

관련문의

부평구문화재단 마케팅팀 032-500-2081

시민회원 *비공개 15명

강은숙 강은영 강지미 각경전 김경민 김광희 김대운 김명희 김미진 김봉숙 김소희 김유정 김종수 김중식 노수진 노철환 류대희 맹윤희 맹효재 문미정 박건호 박경숙 박자영 박지영 박진수 박현정 백승국 송용일 쇼애드(전종진) 신소영 안은숙 양정수 엄정귀 여건봉 오금주 오인석 우사라 유인태 유한실사현수막광고 윤대원 이경아 이도형 이동현 이명숙 이미숙 이상현 이설아 이재홍 이종석 이혜진 이화열 임영희 임윤경 정영진 정찬식 정하운 정하주 조영 조종혁 조현주 주정연 최은정 최인호 최인화 최현미 최형주 한송희 홍성욱 황은숙

문화나비(가맹점)

국민은행 산곡동지점, 백두산 참숯화로구이, 함흥관 외식산업주식회사, 명마가든, 부일정육식당

CMS 운영절차

